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영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녀세대의孝와  
실버파티에 대한 인식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CP&M전공

박 현 명

자녀세대의孝와  
실버파티에 대한 인식연구

주영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CP&M전공

박현명

# 인 준 서

박현명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6월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감사의 글

3년 간의 학위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학위 논문이 비로소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대학원 생활은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졌고, 많은 경험들을 채워졌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고 논문을 쓰면서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고, 알차고 보람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먼저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연구자의 자세를 알려주신 지도교수이신 주영애 교수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곁에서 주신 많은 가르침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세심하게 논문 심사와 지도를 해주신 최배영 교수님과 현직에서 항상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기획자로서의 롤 모델을 보여주신 윤지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어렵기만 했던 설문통계를 바쁘신 가운데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홍영운 선생님께도 감사드리며 설문을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년 동안 저에게 파티를 비롯한 관련 콘텐츠에 대해 항상 고민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교강사님들을 비롯하여 함께 공부했던 선배님,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준 동기 사회, 후배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전공은 아니지만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준 백주원 선생님을 비롯한 조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항상 저를 믿어주고 지켜봐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믿어주신만큼 더욱 잘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봐준 동생과 율케 그리고 너무 이쁘고 귀여운 우리 조카들 정빈, 범준, 원준이에게도 고마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아버님, 어머님, 형님들, 아주버님들, 예쁜 조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존경하며 사랑할 신랑과 뱃속에서 함께 논문 쓰며 고생한 우리 이쁜 딸 뽀송이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파티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파티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며, 선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학교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논문개요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은 이제 100세 시대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60세 이후의 삶 혹은 퇴직 이후(65세)의 삶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실버세대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이 커지면서 그들의 소비성향, 문화, 트렌드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 산업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통사회에서 중시하던 수연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이 감소하게 되었고, 수연례와 같은 생신연회가 아닌 편의를 위한 여행, 선물, 현금 등으로 이러한 축하문화가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의 편의와 실용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장수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 사상과 축하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했던 전통 수연례의 의미와 형식의 감소는 파티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다. 또한 파티 문화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고 있어 실버세대들이 그러한 문화에서 소외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연례를 대체할 만한 실버파티라는 새로운 파티 형식에 관해 자녀세대의 효의식과의 연관하여 실버파티의 필요성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실버세대를 주요 소비층으로 하는 파티 문화와 그 연구를 부흥시키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실버파티를 해 드릴 부모님이 계신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녀 자녀세대 227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9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회수 하였으며, 이 중 유효한 215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 배포 전 파티를 전공

하는 석·박사 10명으로부터 설문지의 유효성을 판단 받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실버파티 구성요소와 실버파티 제약인식 문항의 기술 통계량,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차이 t검증과 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효의식과 효행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 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버파티 필요성인식은 남성과 기혼, 종교가 불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차이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효의식이 효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공경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이 해당 효행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의식과 효행의 요소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효의식과 효행이 높을수록 실버파티에 관한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며, 실버파티를 해드리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관리 효의식과 효행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사항은 칠순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고 자녀세대들도 이때 실버파티를 해드리길 가장 많이 원했다. 또한 파티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파티를 기획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파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약 요인에서는 파티문화에

대한 생소함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으며, 일반적 사항에 따른 결과는 기혼보다 미혼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버파티의 제약을 느끼며 소득이 낮을수록 실버파티 인식도 낮고 비용의 제약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파티의 구성요소 중 실버파티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낸 요인이 '음식의 청결도'였다. 이는 파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의 맛과 멋도 중요하지만 청결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인식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파티장소의 근접성, 비용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파티 스타일링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왔다.

부모에 대한 효의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인을 우대하고 공경했던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 수연례의 의미가 흐려지고 이를 단순히 허례허식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해있다. 시간과 비용도 중요하지만 수연례의 의미를 되살리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실버파티를 통해,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보답하는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녀세대들에게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념하고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파티기획자들에게는 늘어나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파티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는 성장 가능한 분야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실버파티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b>II. 이론적 배경</b> .....	4
1. 실버라이프의 이해 .....	4
2. 효의식과 효의 분류 .....	14
3. 전통수연례와 실버파티 .....	24
<b>III. 연구방법</b> .....	54
1. 연구문제 .....	54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55
3. 조사도구 .....	56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57
<b>IV. 연구결과 및 분석</b> .....	59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9
2. 자녀세대의 효 의식과 실버파티 필요성 .....	61
3. 실버파티 인식과 실버파티 구성요소 .....	74

V. 결론 및 제언 .....	84
1. 결론 .....	84
2. 연구의 한계점 .....	8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목 차

<표1> 가정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2001-2006) .....	8
<표2> 국가별 고령화 진입 시기 소요기간 .....	9
<표3> 실버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	13
<표4> 호텔별 실버파티 패키지 .....	42
<표5> 한복려 원장 교회연 순서 .....	46
<표6> 전통수연례와 실버파티 비교 .....	52
<표Ⅲ-1> 설문지 구성 내용 .....	57
<표Ⅳ-1> 일반적 사항 .....	60
<표Ⅳ-2>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인 .....	63
<표Ⅳ-3> 자녀세대의 효행 요인 .....	64
<표Ⅳ-4> 성별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	65
<표Ⅳ-5> 결혼여부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	66
<표Ⅳ-6> 학력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	66
<표Ⅳ-7> 종교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	67
<표Ⅳ-8> 월소득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	68
<표Ⅳ-9>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과의 차이 .....	70
<표Ⅳ-10>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 .....	71
<표Ⅳ-11>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소 ..	72
<표Ⅳ-12>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행 요소 .....	73
<표Ⅳ-13> 조사대상자의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 .....	75
<표Ⅳ-14> 실버파티 제약요인에 대한 평균값 .....	77
<표Ⅳ-15>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실버파티 제약요인 차이 .....	78

<표Ⅳ-16> 실버파티 고려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값 .....	80
<표Ⅳ-17> 실버파티 고려 구성요소 .....	82

## 그림 목 차

<그림 1>	인구성장 가정별 총 인구(1960-2006) .....	6
<그림 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60) .....	7
<그림 3>	총 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2010-2060) .....	10
<그림 4>	회갑 수연석과 수연상 .....	29

## 사 진 목 차

<사진 1> 명견만리 .....	11
<사진 2> 수연큰상 .....	31
<사진 3> 장국상 .....	31
<사진 4> 회갑(1940) .....	31
<사진 5> 회갑상, 부산박물관 .....	31
<사진 6> 성인남자의 복식 .....	32
<사진 7> 원주 원씨 홀치마 .....	32
<사진 8> 벨레상스 서울 호텔 패키지 .....	39
<사진 9> 파크하얏트 서울 호텔 교회연 패키지 .....	40
<사진 10> 그랜드엠베서더 가족연 패키지 스타일링 .....	41
<사진 1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패키지 상차림 .....	42
<사진 12> 구자경 LG명예회장 미수연 .....	44
<사진 13> 김백봉 선생 미수연 .....	45
<사진 14> 송해 선생 구순연 .....	45
<사진 15> 한복려 원장 교회연 안내지와 궁중음식연구원 입구 .....	47
<사진 16> 한복려 원장 교회연(의례집례/헌작) .....	48
<사진 17> 한복려 원장 교회연(회심곡/교회연 전경) .....	48
<사진 18> 한복려 원장 교회연(큰상/장국상) .....	4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2년 이상, 여자는 2.4년 이상 높았다. 향후 기대수명도 60세 남자는 향후 22.4년, 여자는 27.4년 정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특정 연령까지의 생존확률을 보면 남자는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10년 전인 2004년에는 40.6%였으나, 2014년에는 56.8%로 16.2%p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여자도 10년 전에는 80세까지의 생존확률이 64.4%에서 77.9%로 13.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통계청 2014년).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며 그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초고령화사회라고 한다(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14.3%)에, 2026년(20.8%)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개인적으로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가 길어지는 현상과 함께 퇴직에 따른 정년이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 60.7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년이후 30~40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전노마, 2013)

이로 인해 노인인구들의 정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들 스스로도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실버세대라는 표현을 선호함으로써 과거 노인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의 수명이 길어지고 비율이 늘면서 노인인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욕구 충족 등의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점차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파티 혹은 연회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현대와 달리 과거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을 때 우리 조상들은 수연례를 통해 60세를 넘긴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였다. 특히 수연의례는 전통적인 효(孝)사상과 관계가 깊어 자식들의 효행을 볼 수 있음은 물론 장수한 어른으로서 삶의 지혜를 가졌다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축하를 드리는 중요한 의례였다.

수연이란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로서 회갑(回甲), 진갑(進甲), 70세의 고희(古稀), 77세의 희수(喜壽), 80세의 팔순(八旬), 88세의 미수(米壽), 90세의 구순(九旬) 혹은 졸수(卒壽), 99세의 백수(白壽)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과거에 급제한지 60주년이 되는 회방(回榜)과 결혼한 지 60주년이 되는 회혼례(回婚禮)가 있었다(박명숙, 2001).

이렇듯 좋은 의미로 행해진 수연의례는 기대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로 오면서 기존의 전통적 수연례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60세 혹은 70세가 되어도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수명이 길어진 부모세대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녀세

대들의 효의식의 변화로 시속을 반영하여 수연례가 아닌 대체수단으로 여행, 현금, 선물 등을 더 실용적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실버세대에 대한 의식 변화와 더불어 자식세대들의 의식변화도 요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부모의 장수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수연례에 담긴 자녀들의 효 의식을 되새긴다면 실용적이고 편한 것도 좋지만, 진정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어드리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도 서양의 파티 문화가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점차 생활 전반에서 파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 수연례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트렌드에 맞게 생신을 챙겨드리는 새로운 형식의 실버파티로 수연례를 대신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 뜻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버파티를 실행시킬 자녀세대들의 효의식과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버파티를 활성화시키고 실버 세대를 주요 소비층으로 한 파티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라이프의 개념과 실버파티의 주체자인 자녀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효 의식과 효행을 분석한다.

둘째, 자녀세대의 효 의식과 효행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자녀세대의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과 제약요소, 파티의 중요요소를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실버라이프의 이해

#### 1) 실버세대의 정의

실버(Silver)란 ‘노인’의 대체 개념으로 은(銀)을 지칭하는 말로서 실버들의 흰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197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노인’이란 용어 대신 ‘실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전노마, 2013).

실버를 지칭하는 노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老人)이란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로, 그 개념이 각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배경과 노인 개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1년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aging)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노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둘째,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셋째,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가고 있는 사람, 넷째,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브린(L.Breen, 1960)은 노인을 일반적으로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의 쇠퇴와 심리적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personality)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의 상실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도 정의된다(장인협, 최성재, 1987).

이와 같이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검토하여 종합하여 보면,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심리적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personality)의 변화로 자기 유지기능의 약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사회적 역할기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다(정지영, 주영애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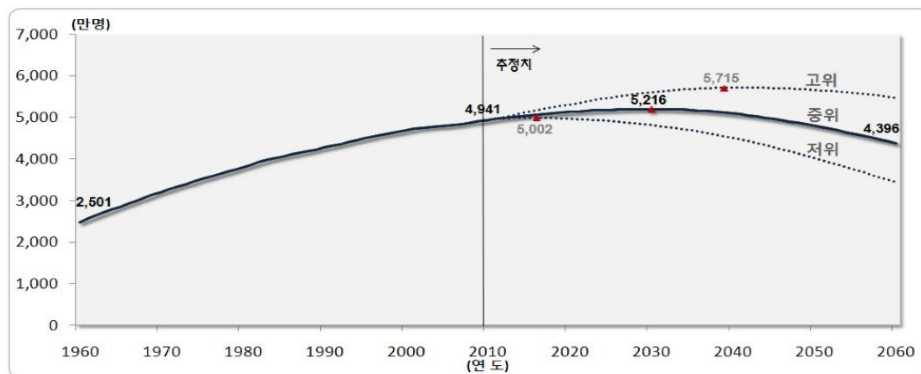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는 존경의 의미로 쓰여질 때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더 적합한 용어가 나타나기 전까지 실버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한다(이의훈·김숙웅, 2004). 본 연구에서도 노인세대라는 단어보다는 실버세대 혹은 부모세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연령대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실버세대의 연령 구분 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통수연례의 연령을 근거로 하여 수연례가 가능한 환갑(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실버세대라 정의하였다.

## 2) 고령화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생산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인구의 증가이다. 젊은 세대들은 취업과

결혼이 어려워지면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향후 미래에 생산 가능한 연령층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의술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아래 [그림1]에서 통계청이 제시한 2010년에서 2060년까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성장 후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1992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성장률은 2010년 0.46%, 2020년에는 0.28%,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1.0%수준의 성장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높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인구성장 고위가정과 낮은 수준의 인구성장을 가정한 저위가정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과 증가율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30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증가율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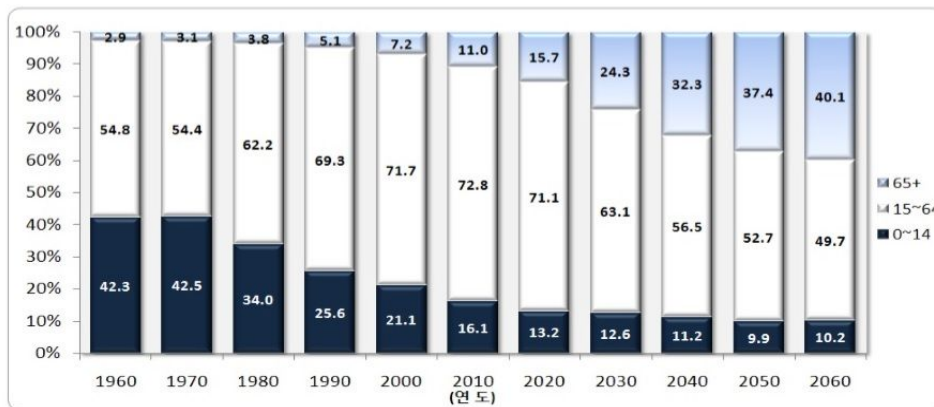
<그림1> 인구성장 가정별 총 인구(1960-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연령계층별 인구구성을 나타낸 [그림2]와 [표1]을 보면 고령인구의 증가를 더욱 잘 볼 수 있다. [그림2]과 [표1]을 보면 연령계층별 인구에서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 기준 72.8%(3,598만 명)

에 달했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여 2060년에는 총 인구의 49.7%(2,187만 명)만이 생산 가능한 인구로 나타나있다. 또한 0~14세인 유소년 인구는 2010년 기준 16.1%(798만 명)에서 2060년에는 전 인구의 10.2%(447만 명)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2010년의 56%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1%인 545만 명에서, 2030년에 24.3%인 1,269만 명으로 2.3배, 2060년에는 인구비율의 40.1%인 1,762만 명을 차지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 출산으로 인한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인해 추후 장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2>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지표	연령	시나리오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2055년	2060년
인구 (천명)	전체	중위	49,410	50,617	51,435	51,972	52,160	51,888	51,091	49,810	48,121	46,125	43,959
		고위	49,410	51,360	53,176	54,803	56,090	56,872	57,147	57,044	56,611	55,844	54,783
		저위	49,410	50,015	49,824	49,213	48,268	46,945	45,167	42,913	40,272	37,394	34,469
	0-14세	중위	7,975	7,040	6,788	6,739	6,575	6,247	5,718	5,171	4,783	4,594	4,473
		고위	7,975	7,427	7,647	8,124	8,125	7,846	7,328	6,905	6,817	6,979	7,087
		저위	7,975	6,770	5,999	5,314	4,781	4,398	3,977	3,515	3,066	2,697	2,399
	15-64세	중위	35,983	36,953	36,563	34,902	32,893	30,890	28,873	27,171	25,347	23,817	21,865
		고위	35,983	37,194	37,124	35,756	34,363	33,008	31,636	30,562	29,269	28,275	26,923
		저위	35,983	36,747	36,082	34,172	31,704	29,045	26,313	23,940	21,578	19,584	17,213
	65세+	중위	5,452	6,624	8,084	10,331	12,691	14,751	16,501	17,468	17,991	17,713	17,622
		고위	5,452	6,740	8,405	10,923	13,602	16,019	18,183	19,577	20,526	20,590	20,773
		저위	5,452	6,497	7,744	9,728	11,783	13,502	14,876	15,458	15,629	15,113	14,856
구성비 (%)	0-14세	중위	16.1	13.9	13.2	13.0	12.6	12.0	11.2	10.4	9.9	10.0	10.2
		고위	16.1	14.5	14.4	14.8	14.5	13.8	12.8	12.1	12.0	12.5	12.9
		저위	16.1	13.5	12.0	10.8	9.9	9.4	8.8	8.2	7.6	7.2	7.0
	15-64세	중위	72.8	73.0	71.1	67.2	63.1	59.5	56.5	54.5	52.7	51.6	49.7
		고위	72.8	72.4	69.8	65.2	61.3	58.0	55.4	53.6	51.7	50.6	49.1
		저위	72.8	73.5	72.4	69.4	65.7	61.9	58.3	55.8	53.6	52.4	49.9
	65세+	중위	11.0	13.1	15.7	19.9	24.3	28.4	32.3	35.1	37.4	38.4	40.1
		고위	11.0	13.1	15.8	19.9	24.2	28.2	31.8	34.3	36.3	36.9	37.9
		저위	11.0	13.0	15.5	19.8	24.4	28.8	32.9	36.0	38.8	40.4	43.1

<표1> 가정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2010-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인구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령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나뉜다. ‘고령 사회’란 노인 인구가 일정 비율로 증가해 어떤 단계에 이르러 그 비율이 거의 안정된 상태를 가리키며,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에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박경숙, 2003). 고령화사회의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그림2]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7%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총 인구의 20%가 넘는 24.3%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되는 것이다. [표2]

에 나타난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나라별로 비교해 놓은 것을 살펴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14%에 이르는 고령사회 진입까지 걸린 연수가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오기까지 24년, 프랑스 115년, 영국 46년, 미국 72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불과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노인 인구비율이 20%에 도달하는 초고령 사회까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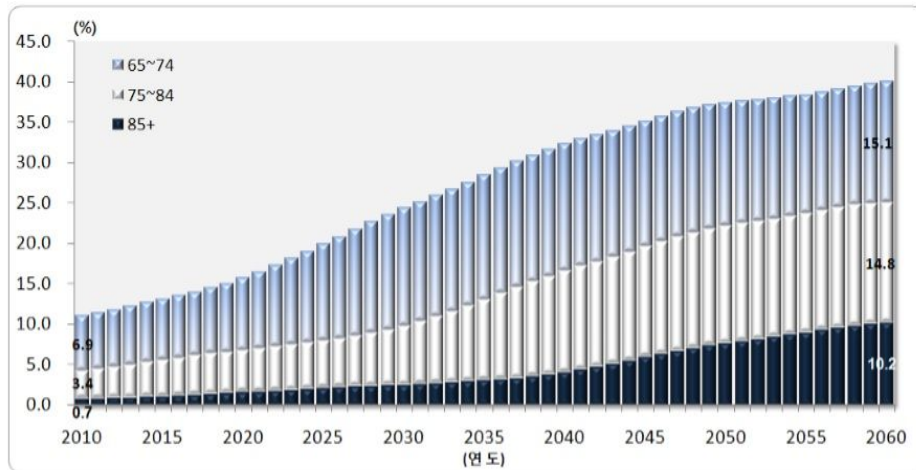
구분	도달 년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고령화사회)(고령사회)	14%→20%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5	2028	46	53
미국	1942	2014	2032	72	18
한국	2000	2017	2026	17	9

<표2> 국가별 고령화 진입 시기 소요 기간(연)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고령인구의 분포 비율을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로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구분하여 그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65~74세 인구는 고령인구 전체에서 2010년 62.4%, 2060년에는 37.7%로 감소하는 반면 75~84세는 2010년 30.8%에서 2060년 36.9%로 증가하며 85세 이상 초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6.8%에서 2060년 25.4%로 3.7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대수명이 높아진 베이비붐세대<sup>1)</sup>의 고령인구 진입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 베이비붐세대(baby boom generation) :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 우리나라는 1955~1963년 6.25전후로 태어난 세대.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요약)



<그림3> 총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2010-20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2016년 4월 8일 방송된 KBS시사 교양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는 최근 타임지 기사 중 지금 태어난 아기의 수명은 142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기사를 인용하여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선 노화를 막고 질병을 예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높아진 기대수명을 반영하듯 최근 ‘알파에이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기존에 인류가 생각했던 인간의 기대수명에 플러스 알파 30년을 더해 이제 최대 기대수명을 120세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세계 국가들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길어진 수명만큼 퇴직 이후 실버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매체를 인용하면, ‘대한민국 100세 이상 인구 15,000명. ‘1편 알파에이지 시대가 온다’에서 본 것처럼 재생의학, 대체의료, 유전자 기술 발전 등은 인간 수명을 더 연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오래 사는 것은 인간에게 과연 축복이기만 한 것일까.

장수시대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준비 부족, 세대 갈등, 경제 저성장 심화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개인과 사회에 수명연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길어질 수명에 맞춰 개인 인생 패러다임과 사회 전체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고령화의 극복 방법은 고령화에 있지 않을까. 김태유가 개인과 사회의 이모작 경제를 통해 고령사회의 해법을 고민해본다. 현재 우리는 평균 50대 중반 은퇴한 뒤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120세'로 연장될 경우 남은 60년을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으로 버티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급증하는 고령인구로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0.14%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은 203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0년 경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재영, 2016년4월7일자 기사, 연구자 재정리).



▲<사진1>. 명견만리  
(KBS 제공/인터넷 폴리뉴스)

### 3) 실버세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개념과 정의를 선행연구를 통해 보자면, 라이프스타일 (Life style)이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의견 등에 관련된다.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생각과 행위에 관한 유형들의 집합이다. 구별되는 생각이나 행동유형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행동 유형을 공유하는 집단들과는 서로 다른 독특한 집단이나 라이프스타일 세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의훈·김숙응, 2004).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나 사회 구성원들 일부분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Lazer, 1963)이자. 개인의 행동을 표현하는 커다란 복합적 상징이며, 생활상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가치와 부합하여 목적이나 사건의 과정에 체계적으로 작용한다(Levy, 1963).

이 외에도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생활, 시간, 재화를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특성이며, 개인이 문화, 사회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Engel 등, 1978) (김재철, 2014 재인용).

사회학자인 Max Weber와 심리학자인 Alfred Adler의 저서에서 분석적 용도로 언급된 이래 중요한 사회적 분석단위로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박문화, 1999),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주위환경에서 무엇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다(최낙환,1998).

Coleman(1964)은 라이프스타일을 “각 개인의 지각, 사고, 행동의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개인은 독자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성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Allport(1995)는 라이프스타일은 생활과정에서 차츰 형성되어 온 것으로, 개인의 생활처리의 전부이거나 적어도 대부분을 매일 방향 짓고 통합하는 것과 일관된 지각, 사고, 행동을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르고 개인은 독자의 비교적 일관된 라이프스타일을

확립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Ansbacher(1967)에 의하면 라이프스타일은 인지스타일과 이를 매개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위를 반응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이유리, 2006재인용).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버시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시작되었고,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1990년대에는 이에 대응하는 마케터들의 전략으로 발전하였다(Moschis, 1992). 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행해지기 시작하였다(전노마, 2013).

[표3]은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여러 학자들은 실버소비자의 심리 묘사적 특징, 가치관 등을 파악하였다(김근영,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그들이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보고 실버파티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표3> 실버 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Moschis (1993)	노화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세분화 연구로 ‘gerontographics’ 을 개발
김훈철(1992)	기존 노인층에 비해 뉴실버층이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소비자 집단임을 밝힘
이의훈·신주영 (2004)	50세 이상 남·녀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실버시장 세분화 연구에서 세분시장별 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함
이혜영(2006)	실버층의 여가 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버층에 맞는 여가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김숙웅(2007)	50세 이상 남·녀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영향요인 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안전지시형, 가지지시형, 여가지향형으로 분류함
손기복(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 및 여가 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서 라이프스타일을 보수적 성향, 개방적 성향, 전통적 성향, 개인적 성향으로 분류함
서경환(2014)	실버층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신용카드 선택요인에서 개성 추구형, 여가 지향형, 건강추구형, 유행 추구형, 타인 중시형으로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함

자료 : 김근영(2007), 전노마(2013). 이명숙(2015) 선행연구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실버세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과 환경개선으로 삶의 조건이 이전보다 풍요로워져 은퇴 후 제 2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남은 여생을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보내고자 하는 이들의 니즈에 맞춰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 2. 효의식과 효의 분류

### 2) 효의 개념

효란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따르고 잘 받들어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天倫)이라 하여 하늘에서 내려준 인륜이라 할 만큼 단순한 생물학적 결합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인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자식이 바른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힘을 쓰며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이렇듯 부모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양하며 부모가 죽어서도 효를 다할 것을 예로부터 강조하였다.

효(孝)라는 글자의 의미를 보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효는 부모를 모신다는 뜻인데 로(老)의 비(匕)가 생략된 부분에 자(子)가 로(老)를 받들고 있는데(김미정, 2011 재인용), 이는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의미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예(禮)를 중시하였고 그 중 효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중 오륜(五倫)의 첫 번째 덕목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論語』에서 공자는 노나라의 대부 맹의자(孟懿子)가 효에 관하여 묻자 “어기지 말라<sup>2)</sup>”고 하였고, 제자 번지(樊遲)가 그 뜻을 묻자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 장사를 지낼 때도 예로써 모시고, 제사도 예로써 지내야 한다.”<sup>3)</sup>고 하여 생존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예를 어기지 않는 것이 효의 실천임을 말했다. 또한 자유(子游)의 물음에 공자는 “근자에는 효를 공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나 개와 말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sup>4)</sup>라고 하여 효는 참다운 공경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봉양만으로 진정한 효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자하(子夏)가 효에 관하여 묻자 “언제나 즐거운 낮으로 섬기기가 어렵다. 일이 있으면 젊은이들이 수고를 맡고,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어른께 드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라 할 수 있는가?”<sup>5)</sup>라고 하였다(김혜겸, 2003).

『孝經』에는 효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를 훼손하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sup>6)</sup>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효는

2) 『論語』, 爲政篇, 「無違」

3) 『論語』, 爲政篇,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4) 『論語』, 爲政篇, 「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5) 『論語』, 爲政篇, 「色難 有事 弟子 服基勞有酒食 先生饌 曾是以爲孝乎」

같은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孝經』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는 도를 취하여 어머니를 사랑함이 동일하다”<sup>7)</sup>고 기술되어 있다. 율곡은 효로서 몸을 다스리는(以孝守身) 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에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부모가 남겨준 이 몸은 천하의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다.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로써 알 수가 있다. 어찌 감히 몸을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며 부모를 극진히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sup>8)</sup>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막중한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는 교시이다. 그리하여 율곡은 죄목 가운데서 불효가 제일 크다<sup>9)</sup>고 했다(백석원, 2003).

효 의식에 대한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면 효란 단순히 행동하고 보여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의 정신 즉 효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효는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더욱 중시하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이 덕을 쌓을 수 있는 실천적 덕목들로, 부모에 대한 ‘孝’는 모든 덕의 근본으로서 개인과 가정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어 인간 사회의 결속과 질서를 확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길표, 주영애, 1995)이다.

효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정신과 중요성만큼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지켜져야 하는 도덕적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우리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효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기본 정신인 효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강제

6) 『孝經』 「開宗明義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是也.”

7) 『孝經』 「土章」 “子曰 資於事父以事母 其愛同.”

8) 李珥, 『擊蒙要訣』 「事親章」

9) 李珥, 『擊蒙要訣』 「事親章」

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3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이라고 한다)를 제정하고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이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등, 효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 할 수 있는 입법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김상식, 2015).

효행장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김상식, 2015).

효 의식 고취와 효행의 실행을 위해 이러한 강제성을 띤 법적 수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러한 법을 만듦으로써 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효의 유형

효의 개념과 의식을 새기면서 행동해야 진정한 효행을 실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효의 여러 유형 중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김혜겸, (2003)과 김미정,(2011))를 참고하여 효를 11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 (1) 생육(生育)의 효

생육의 효란 부모가 낳아주신 신체를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보호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소중히 하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明心寶鑑』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아 애달프다. 어버이시어,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 자 할진데 넓은 하늘과 길이 끝이 없느니라.’<sup>10)</sup>는 구절이 있다. 이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길러주고 가르치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주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잊지 않고 키워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보답하는 효를 말한다.

### (2) 공경(恭敬)의 효

『孝經』에 ‘효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있어서는 배천(配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sup>11)</sup>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야말로 덕의 근원이 되며 부모를 하늘처럼 높이 모셔야 함을 뜻한다(김혜겸, 2003).

---

10) 『明心寶鑑』, 孝行篇, 「時曰 父兮生我 母兮鞠我 哀哀父母 生我劬勞 欲報深恩 昊天罔極」

11) 『孝經』, 傳之五章, 「孝 莫大於父 嚴父 莫大於配天」

『論語』에도 공자가 말하길, “현대에는 효를 부모님께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해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개나 말 같은 짐승도 먹여 기르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sup>12)</sup>하여 부모에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 뿐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진정한 효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경의 효’란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효를 함에는 봉양의 효가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효는 정신적으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효를 말한다. 대개는 모에게는 사랑으로 공경하고 부에게는 근엄하게 공경함을 의미한다(김미정, 2011).

### (3) 봉양(奉養)의 효

부모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쓰며, 육체적 편안함 뿐 아니라 정신적인 편안함까지 고려하여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의미이다.

『內訓』에서는 ‘증자가 말하기를 효도하는 자식의 노인 공경하는 법이란,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뜻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즐겁게 해드리며, 그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히 해드리며 음식을 그리고 정성껏 받들어 드리면 되는 것이다.’<sup>13)</sup>

『孝經』에서는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 봉양하는 데는 부모가 즐거워해야 한다.’<sup>14)</sup>고 하여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데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필해야 함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부모의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항상 모자람이 없는지 신경쓰며 살펴야 하

12) 『論語』, 爲政篇,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13) 『內訓』, 事親章,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基心 不違基志, 樂基耳目 安基寢處 以基飲食 忠養之」

14) 『孝經』 傳之七章, 「子曰 孝子事親 養則致基樂」

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이다.

#### (4) 양지(養志)의 효

부모의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양지의 효라 한다.

『小學』에 보면 증자는 “효자가 늙은 부모를 봉양할 때는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며, 그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그의 잠자고 거처하시는 곳을 편안히 하며, 그 음식으로써 성심껏 봉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랑하시는 바를 또한 사랑하되, 부모가 공격하시는 바를 또한 공격해야 하거니와 개와 말에 이르러서도 다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박일봉, 2003)라고 하였다(김미정, 2011 재인용).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편안한 거처와 음식으로 육체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데 육체적 편안함 뿐 아니라 정신을 편안히 하여 부모가 진정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5) 순종(順從)의 효

‘순종의 효’는 부모를 모실 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낯으로 부모의 뜻을 잘 새기고 말씀을 명심하여 집안의 모든 일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화목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록 부모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부모의 뜻이 크게 어긋남이 없다면 순종하여 따르도록 하며 만약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순종의 효인 것이다.

## (6) 시봉(侍奉)의 효

부모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밤낮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시봉의 효라고 한다.

『童蒙先習』에서는 효자가 아버지를 섬김에는 닭이 처음 울거든 세수와 양치질을 다하고, 부모님의 처소로 가서 기운을 나직이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옷이 더운가 추운가 묻자 오며, 무엇을 잡수시고 싶은가를 묻자 오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리며, 저녁에는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는 문안들이며,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고향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오며, 멀리 나돌아 다니지 않고 나돌아 다니는 데는 반드시 돌아와서는 행방을 알리며 감히 마음대로 몸가짐을 하지 않고 감히 재물을 멋대로 처리하지 않는다.<sup>15)</sup> 라고 하여 항상 부모님의 가까운 곳에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행동하며, 정성껏 봉양하는 것을 시봉의 효라고 한다.

부모를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 항상 살피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 (7) 보신(保身)의 효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데 있어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소중히 하고 청결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것이 ‘보신의 효’이다.

『孝經』에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 감히 훼손

---

15) 『童蒙先習』, 總論, 「孝子 之事親也 鷄初鳴 咸盥漱 適父母之所 不氣怡聲 問衣燠寒 問何飲食 冬溫夏清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不遠遊 遊必有方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손하거나 상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요.’<sup>16)</sup>라고 하였다. 자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고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여 부모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이다.

#### (8) 간언(諫言)의 효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방법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봉양, 의지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가 불의, 불합리한 일을 하실 때는 부드럽게 말씀드려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박선민, 1997)로 여겼는데 이것이 ‘간언의 효’이다.

『論語』에서 공자가 말하길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간언을 올릴 때는 부드럽게 올리고, 설혹 어른이 나의 뜻을 안 들어 주셔도 여전히 공경해 모시고 부모에게 위배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또한 부모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sup>17)</sup>고 하였다. 이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 바른 말을 할 때에도 그 방법이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비록 부모가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부모가 잘못 된 판단을 하실 때에는 바른 말을 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방관하는 것을 불효라고 보았다.

#### (9) 입신행도(立身行道)의 효

『孝經』에서는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남겨 이로써 부

16) 『孝經』 「開宗明義章」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是也.”

17) 『論語』, 里仁篇. 「子曰 事父母幾諫 見志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

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의 마침이니, 대저 효는 부모를 섬기는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임금을 섬기고, 끝으로 입신하는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다.

입신행도의 효는 스스로의 학문과 덕을 닦고, 사회에 나아가서 천도와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더 나아가 입신출세하여 자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문과 조상을 빛내고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식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진 한 인격체로 성장한 뚜렷한 사람의 일원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곧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이길표, 주영애, 1995).

#### (10) 형제·친척 간 돈목(敦睦)의 효

효는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것 뿐 아니라 형제·친척 간의 사이를 좋게 하여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또한 그 범위에 속한다. 이를 ‘돈목의 효’라 한다.

#### (11) 상·제례(喪·祭禮)의 효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도 행해야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예를 다하여 모셔야 한다는 것이 ‘상·제례의 효’이다.

『孝經』에 ‘효자가 그 부모상을 당하면 곡소리가 그치지 않고, 고운 옷을 입으면 불안하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아니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아니하며, 이것은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정 때문이다.’<sup>19)</sup>라고 하였다.

18) 『孝經』, 經一章,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從也 夫孝 始於事親 中於事君 終也立身」

19) 『孝經』傳之十四章, 「子曰 孝子之喪親 哭不哀 禮無容 言不文 服美不安 聞樂不樂 食旨不甘 此 哀吊之情」

부모의 무한한 은혜를 부모님 살아생전에 갚아 효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다 갚기도 전에 부모가 돌아가시므로 그 이후에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나 제사를 지낼 때에도 부모를 그리워하며 예를 다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11가지 유형으로 효를 분류하고 정리해보았다.

효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그 모든 바탕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은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에 와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나 의식만 가지고 실천이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류한 효의 종류를 몇 가지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효라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3. 전통수연례와 실버파티

#### 1) 전통수연례의 의미와 행례

##### (1) 전통 수연례의 의미

어른의 장수를 기원하는 모든 생신 축하연을 수연례(壽宴禮)라 한다. 수연은 연회의 의미로 연회 연(宴)자를 쓰기도 하지만, 대자리 연(筵)을 함께 쓰는 것은 자리를 깔고 큰상을 올린다는 의미로 연회를 높이는 뜻이 있다. 수연례에는 육순(六旬, 60세), 회갑(回甲, 61세), 진갑(進甲, 62세), 칠순, 고희(古稀, 70세), 희수(喜壽, 77세), 팔순(八旬, 80세), 미수(米壽, 88세), 구순(九旬, 90세), 백수(白壽, 99세)등이 포함된다(김인옥, 안혜숙, 주영애, 2006).

생일 잔치 중 가장 경사스러운 잔치가 회갑연이었다. 수명이 그다지 길지 못했던 조선시대에 회갑까지 60년 동안 사는 삶은 진실로 축하할 만한 일이

었으므로, 자손들은 성대하게 회갑상을 차려 헌수주(獻壽)와 음악이 동반되는 회갑연을 올려드렸다. 이때에는 자식, 손자, 일가친척, 이웃들이 전부 모여 축하하며 주인공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수주(壽酒)를 올린다(천진기, 2014).

돌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인 회갑(回甲)외에, 혼례를 치른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는 회혼(回婚), 과거 급제를 한 해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는 회방(回榜)이라 한다. 이러한 수연을 치르려면 적게는 61세부터 많게는 80~90세까지 살아야하기 때문에 회갑·회혼·회방은 『주자가례』·『사례편람』 등에 나오지는 않지만 조선시대 3대 수연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생의례의 하나로 행해졌다(최순권 외, 2007).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갑자를 돌아만 60번째 생일을 맞는 것은 전통사회에서는 기념할 만한 일이었다. 회갑을 환갑(還甲)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통사회에서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고대에서부터 나라에서도 신분에 상관없이 경로효친사상을 바탕으로 한 축하연을 열어주거나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역을 면제해 주는 등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노인 우대는 조선시대에 경로례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여 우대하였던 제도이다. 국가에서는 80세 이상의 백성에게는 1자급(資級)을, 90세 이상에게는 2자급(資級)을, 100세 이상에게는 3자급(資級)을 올려주고 80세 이상 천인에게는 천역을 면제하였다(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1991).

수연에 대한 기록은 조선조 숙종 연간에 와서 주갑을 칭송하는 축하의 글과 시가 나타난 이후 영조 연간에 회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는 의식이 시작되었다(이어화, 2001).

회갑(回甲)에 관한 첫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숙종 8년

1682년 10월9일 임오 세 번째 기사에 “내년은 자의대비의 회갑이 되는 해입니다. 민간의 미천한 백성도 부모의 회갑이 되면 술을 거르고 음식을 장만하여 친족을 모아 경하하니, 이는 곧 인정상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한 대 목에서 찾을 수 있다(천진기, 2014).<sup>20)</sup>

숙종 10년 갑자(1684) 11월에 “지금 대왕대비전의 주갑 탄신일(周甲 誕辰日)이 마침 이때에 당하였으므로, 경하하는 예를 베풀지 못하고 다만 반사(頒赦)만 하게 하였다.”라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화갑자(花甲子)에 관한 첫 기록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부용정가(芙蓉亭歌)」(1795년)에 “성모(聖母)의 나이가 화갑자(花甲子)를 맞이하였기에”<sup>21)</sup> 라는 대목에서 회갑을 7언4운에 맞춰 화갑자라 고상하게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조 19년(1795) 윤12월 13일에 “봉수당(奉壽堂)에 나아가 연회를 베풀었고, 7언4운(7언4운) 율시를 내리면서 화답시를 지어 올리라고 하였다.”<sup>22)</sup>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을묘년은 자궁(慈宮)께서 화갑(花甲)이 돌아오는 경사스러운 해이다. 내가 자궁의 어가를 받들어 현릉원(顯隆園)의 토지신께 아뢰고 화성(華城)행궁(行宮)으로 모시고 돌아와 장락당(長樂堂)<sup>23)</sup>께서 잔을 올리고 낙남軒(落南軒)에 술을 두고 노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민(四民)을 진휼하였고 화성에 다시 2년간 금품을 내렸다.”<sup>24)</sup>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최종호, 2015).

수연례(壽宴禮)는 수명이 길지 못했던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던 의례였기

20) “明年適當慈懿大妃回甲之年。閭巷小民，當父母回甲之歲，猶且釀酒設饌，聚族而慶之，此乃人情之所不能已者。”『朝鮮王朝實錄』 숙종13권,8년(1682) 10월9일.

21) “聖母年周化甲子”(『茶山詩文集』 「芙蓉亭歌」(1795년).

22) 『朝鮮王朝實錄』 正祖 十七年(1795) 閏二月 十三日.

23) 정조가 머무른 장락당은 건물을 바라보고 우측에 배치되어 있고, 혜경궁 홍씨가 머무른 봉수당은 건물을 바라보고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24) 弘齋全書 제181권 군서표기(羣書표기) 3 어정(御定) 3

때문에 일생의례 중 수연에 대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대대로 효를 중시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을 가졌기에 수연례를 행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 (2) 전통 수연례 행례

行禮란 의례의 모든 행위과정과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는 수연례의 상차림, 의복,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루게 된다.

### ① 수연 상차림

수연례에서 상차림은 집안 사정에 따라 달리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수연상의 높이나 규모를 보고 자녀들의 효심(孝心)정도를 점치기도 하였다. 상차림은 큰상과 곁상으로 임매상, 즉 장국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게 되는데 큰상은 수연례를 받는 사람 앞에 차리며 굽이 없는 접시에 높게 피어 쌓은 것들을 올려놓고 연회가 끝나면 다함께 나누어 먹었다. 큰상의 음식은 높이 꿰다하여 고배상(高排床)이라 하고, 연회가 끝날 때까지 바라보기만하고 먹을 수 없다하여 망상(望床)이라고도 한다. 또한 큰상 뒤에 차리는 장국상은 연회를 진행하는 동안 부모님이 시장하지 않도록 간단한 찬과 국수 등을 올렸다.

산제사라고도 하는 환갑잔치의 상차림은 부모를 위한 큰상과 하객을 위한 주안상으로 대별 된다. 일반적으로 환갑상차림은 가풍과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큰상의 진설은 숙수(熟手)라 불리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음식을 홀수의 원반이나 사각반 위에 다섯 치(약 15cm)이상 한 자(약 30cm)높이로 음식물을 피는 데, 음식물 높이가 부모에 대한 효성의 척도라고 여겼다(최

종호, 2015).

큰 상의 양 옆으로는 『상화(床花)』 또는 떡으로 빚어 구성한 『색떡』을 놓아 장식한다. 상화는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꽃을 말한다(박명숙,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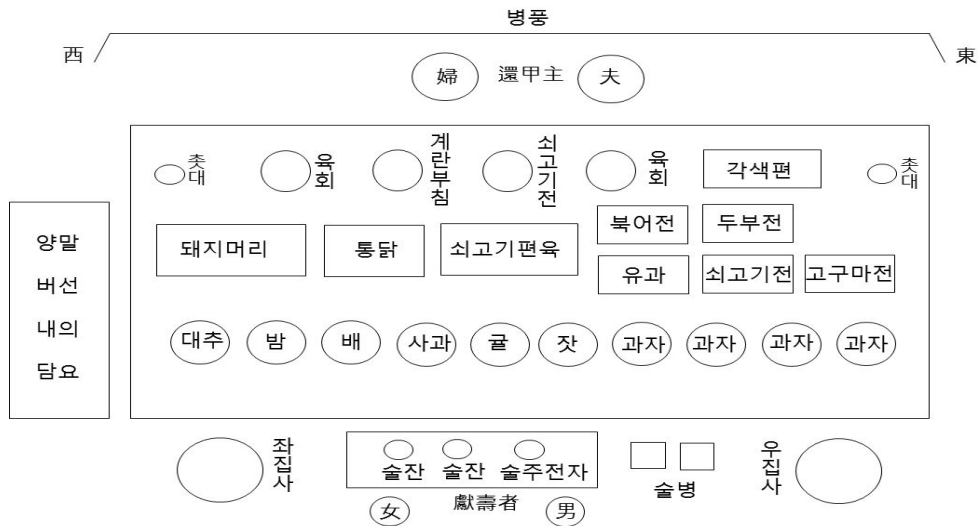
수연상의 기본음식으로 교자상에 건과(밤, 대추, 호도, 잣, 은행 등), 생과(사과, 배, 감, 귤 등), 다식(흑임자, 송화, 녹말다식 등), 유과(약과, 매작과, 연사, 강정 등), 당숙(팔보당, 졸병, 옥춘 등), 편(색떡, 승검초떡, 주약 등), 포(어포, 육포, 건문어 등), 정과(청매정과, 연근정과, 유자정과 등), 적(쇠고기적, 닭적, 화양적 등), 전(생선전, 갈납, 고기전 등), 초(홍합초, 전복초 등)이 오르고, 곁상에는 면(麵), 신선로(神仙爐), 편육, 식혜, 나박김치, 초간장, 화채, 구이, 편청 등을 놓는다. 이와 같은 상차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수연 상차림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이영인, 1993 김인옥 재인용).

음식을 높이 피서 차리는 큰상차림은 조선시대 형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과인 약과는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한 음식이며, 일명 조과(造菓)라고도 한다. 원래는 과일, 새, 물고기 등의 모양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이런 모양으로는 높이 피는데 불편함으로 방형 또는 다식 모양으로 고쳐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큰상의 껌새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음을 알게 한다(박명숙, 2001).

한국 전통의례에 관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김종학, 1985), 환갑잔치는 주로 날씨가 화창하면 마당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갑주의 안방이 일반적이다. 또한 환갑잔치에 참여하는 범위는 흔히 마을안 사람들이며, 음식을 싸서 개별적으로 이웃에 보내지 않는다(주영애 외, 2006).

잔칫날에는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과객까지도 맞아들여 음식을 대접한다. 경사스런 날에 많은 손님들은 가무도 곁들여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한다(박명숙, 2001).

이렇듯 부모의 회갑을 축하하는 연회에는 넉넉한 인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크게 베푸는 것이 전통이었다. 기본적으로 수연상차림은 지역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회갑잔치 수연석과 수연상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4> 회갑 수연석과 수연상

출처 : 한국일생의례사전(2014)

지역별 상차림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서울

회갑상차림은 주변 앞에 면과 주안상 음식을 차려놓고 편과, 숙실과, 생실과, 유고, 유밀과 등은 높이 고여서 절하는 사람이 보는 앞줄에 색을 맞추어 배치한다. 고이는 음식은 계절이나 가풍, 형편 등에 따라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는다.

종류를 보면, 유밀과(약과, 만두과, 다식과, 한과 등), 유과(빈사과, 세반인사, 깨강정, 세반강정, 계피강정, 실백강정, 매화강정 등), 다식(송화다식, 녹

말다식, 흑임자다식, 밤다식 등), 사탕류(옥춘, 팔보당, 온당, 줄병, 원당 등), 생실과(사과, 배, 귤, 감, 생률 등), 건과(대추, 호도, 은행, 실백, 건시 등), 정과(연근정과, 생강정과, 모과정과, 청매실과, 밤초, 대추초 등), 편(백편, 꿀편, 싱김초편, 화진, 주악, 단자 등), 어물(문어오름, 어포, 육포, 건전복 등), 편육(양지머리, 제육), 전유어(각색 전유어, 전복초, 홍합초), 적(닭적, 육적, 화양적 등) 서울은 다른 고장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고이는 높이는 치수를 기수로 하는 관습(5치, 7치, 9치, 1자 1치, 11품, 13품, 15품 등)이 있고 접시수도 기수로 하였다(박명숙, 2001, 연구자 재정리)

㉠ 충청도

회갑을 비롯한 특별한 상차림으로 각종 생과일, 유과, 강정, 다식, 실백, 호도, 생률, 대추, 꽃감, 당숙, 전과, 편, 적, 포 등을 모두 높이 고인다. 실백을 고일 때에는 잣에 물을 들여 축하의 글자인 수(壽), 복(福)등을 쓴다. 높이 고인 상 앞쪽에 장국상을 차려 온면, 찜, 전, 편육 등을 차린다.

㉡ 전라도

큰상 음식에는 마른 문어나 오징어를 오려 장식용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다. 경상도에서는 과일, 과자, 육류, 각색편, 약밥 등을 차리고 그 밖에 죽편, 식혜, 잡채, 술 등으로 대접한다.

㉢ 평안도

큰상에 약과는 10cm 사방의 크기로 만들고 떡(절편)도 20~30cm크기로 만들어 고이고 그 위에 조화를 장식하여 상 양옆에 놓는다.

㉣ 함경도

귀주떡, 절편, 인절미 등을 크게 만들어 수북하게 고인다. 돼지고기 삶은 것, 쇠고기 삶은 것, 생선을 반 썬 말려 굵거나 찢것도 쓴다. 과인과 과일 등을 높이 고여 담아 큰상을 꾸민다(김인옥, 2003).

한편 회갑에는 ‘수여남산지고(壽如南山之高)’라고 써서 잔칫상에 붙이기도

한다(이차숙, 1993). 이는 남산이 높을 것만큼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는 글귀이다.



<사진2> 수연큰상



<사진3> 장국상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아래의 <사진4>와 <사진5>는 실제 수연상을 찍은 문헌자료이다.



<사진4> 1940년대 회갑



<사진5> 회갑상

출처 : 한국일생의례사전(2014)

## ② 수연 의복

수연례에서 의복의 형식이나 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나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관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갑에 남자는 벼슬이 있

는 사람은 관복을 입고, 일반인은 도포나 두루마기에 갓을 쓴다. 여자는 소색(素色) 길 바탕에 자주색 삼회장저고리와 남치마를 입었다(신유, 2000). 특히, 전통적으로 여자가 자주색 삼회장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 것은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고, 남편이 있어야만 가능한 옷차림이었으므로 그러한 여성은 다복(多福)하다 하였다.



<사진6> 성인남자의 복식



<사진7> 원주 원씨 홀치마

출처 : 성신여자대학교 박광훈복식박물관

자식들이 부모님을 호사시켜 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여 음식상과 더불어 새 옷을 마련하여 드렸다. 남자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 등을 입고 갓을 쓰며 집안에 따라서는 도포를 입기도 하는데 상을 받기 전에 입었다가 상을 받으면 벗는다. 여자는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와 원삼까지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새로 장만한 치마, 저고리를 착용한다. 자식들 역시 한복을 갖추어 입기도 한다(이은주, 1995).

회갑인의 부모가 살아계시면 색동저고리와 홍색띠를 두르고 절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 초나라에 노래자(老萊子)라는 사람이 73세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어리광을 부려 부모를 즐겁게 해 준 데에서 유래한 풍습이라고도 한다(최종호, 1998). 이를 ‘五色斑斕之慶’이라 한다.

색동저고리와 홍색띠는 새로운 탄생의 삶을 상징하여 자신이 태어난 갑자년(甲子年, 즉 재갑자(再甲子))에 치르는 것이므로 갓난 아이 때와 같은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효순(1986)은 회갑에는 채색옷을 입는다고 하였다(김인옥, 안혜숙, 주영애, 2006).

### ③ 수연례 절차

수연례에는 어른의 생신에 자손들이 수연상을 차리고 술을 올리며 장수를 기원한다. 고례에는 수연이라는 말이 없고, ‘헌수가장례(獻壽家長禮)’라 했고, 자손들이 폐백 예물을 드리고 헌수배례를 올린다(송재용, 2010).

회갑을 맞은 당사자는 자녀들로부터 헌수잔(獻壽盞)을 받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사당(祠堂)에 음식을 진설하고 분향 재배하고 잔을 올리고 다시 재배(再拜)하는 예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당이 없기 때문에 허위(虛位)를 모시고 사당차례와 같은 절차로 단잔(單盞)을 올리고 회갑을 맞이하였음을 조상께 고하는 것이다(유덕선, 1996, 김인옥 재인용). 전통사회에서는 의례를 행하기 전에 사당에 모신 조상들께 먼저 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헌수(獻壽)는 자손들이 어른에게 술을 올리는 것으로, 회갑잔치에서 헌수례는 환갑주가 자녀로부터 받는 효행 가운데 으뜸이다. 환갑주 부부가 수연석으로 인도되어 보료에 앉으면, 환갑주의 직계비속의 자녀들이 서열대로 북향으로 도열하여 남자는 우집사, 여자는 좌집사 도움을 받아서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과 생기복덕을 축원한다(천진기 외, 2014).

만일에 회갑주의 부모가 살아 계시면 그 부모가 먼저 큰상 앞에서 헌수를 받고서 그 뒤에 회갑주가 회갑상을 받게 된다. 회갑주의 동향 형제분들은 큰상 옆에 회갑주과 같은 줄에 앉고 회갑주 부부만이 헌수를 받으며 형제들

은 회갑주에게 술을 따라준다. 회갑 당사자가 어머니일 때도 아버지부터 현수를 하며 한쪽 부모만 살아 계실 때는 회갑연의 잔은 하나만 놓는다. 큰상을 치운 후에 손님이 오면 사랑에서 술상을 따로 차려놓고 인사를 받는다(김인옥, 2003).

현수절차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삼현육각(三絃六角: 거문고·가야금·향비파·북·장구·해금·피리·대평소 한 쌍)의 풍악이 은은하게 연주된다.

㉡ 회갑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손들이 새로 지어서 바친 좋은 의복을 입고 배필자와 동반하여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 회갑인의 동향열 형제들은 큰상 옆에 회갑인과 같은 줄에 좌우로 배석하여 앉는다.

㉣ 아들은 부부 동반하여 회갑상 가까이 나아가 큰절을 한다.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하는데 번거롭지 않게 평절로 한번 씩만 할 수도 있다.

㉤ 장남 내외부터 차남 내외, 그리고 첫째 딸 내외, 둘째 딸 내외 장손자 등 직계부터 시작하였다.

㉥ 다음에는 손자 손녀들이 연령순, 향렬순으로 각각 술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

㉦ 자손들의 현수가 끝나면 혈연관계가 있는 일가친척이 연령순, 향렬순으로 각각 술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박명숙, 2001).

과거에는 환갑을 며칠 앞두고 수연시(壽宴詩)의 운자(韻字)를 내어 친척이나 친지에게 알려 시를 짓게 하고, 잔칫날은 시를 발표하면서 흥을 돋구웠으며, 시를 모아 수연시첩(壽宴詩帖)을 만들어 자손 대대로 전하기도 하였다(김상문 외, 1999).

### 3) 실버파티

#### (1) 실버파티 개념 및 분류

##### ① 파티의 개념

파티(Party)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중세시대, ‘부분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partie’에서 출발하여, ‘한 무리, 한 편’을 가리켰고, 나아가 ‘모임이나 정당’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즉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 모인 것이 파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오경화 외 3인, 2004).

파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파티는 친목을 도모하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잔치 또는 사교모임을 뜻한다. 파티는 작은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하여 결혼 피로연, 생일 축하연, 각종 기념회 등에 이르기까지 잔치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두 단어는 독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잔치란 일명 ‘연회’로 경사가 있을 때 음식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뜻하며, 파티는 사교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 모임을 의미한다(송래현 외 2인, 2007).

즉, 사람이 모여 같은 목적을 갖고, 사교와 친목을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파티는 만남과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규모와 목적에 따라 용어가 다양하게 바뀐다(이지은, 2016).

서양에 파티라는 단어가 있듯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모임이 한국에도 전통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연회, 연향, 잔치 등으로 쓰였다.

한국에서 파티이벤트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하나의 사회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면서 특

수한 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파티이벤트에 대한 관심과 참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파티이벤트’란 기껏해야 ‘생일 파티이벤트’에 불과했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파티이벤트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문화욕구가 상승하고 고급 사교문화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서 새 트렌드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다(민정윤, 2005).

최근의 파티플래닝(party planning)이란 용어는 식공간 연출과 관련한 식음(먹거리) 및 공간연출(볼거리), Theme(체험거리)를 위해 주제가 있는 특별한 파티공간을 디자인하고 음식, 연출, 테마의 시각적, 촉각적 즐거움이라는 요소와 재미와 색다름이라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인간의 오감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극하는 정교한 행위라 할 수 있다(김선희, 2004). 즉 파티플래닝이란 테이블스타일링(table styling)을 포함한 푸트스타일링(food styling)이라는 새로운 영역과 함께 식음공간을 새로운 이벤트를 위한 목적과 기능에 합당한 장(공간)으로 개성 있고 편안한 식음공간을 기획, 조정, 연출하는 것이다(홍종숙, 2007).

현대의 파티는 파티 주최에 따라 개인 파티와 기업파티로 크게 나뉘지며,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티의 주인공이 60세 이상의 회갑을 맞이하는 실버세대 개인이며, 일반적으로 회갑이나 고회연, 미수연 등 전통 수연례는 개인의 생일에 이루어지므로 실버파티는 개인파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키즈파티나 생일파티처럼 실버세대의 생신연이나 파티를 실버파티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자녀세대의 인식과 앞으로 실버파티를 파티산업의 한 부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하고자 한다.

## ② 실버파티의 개념

실버파티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언급된 바가 없으나 실버파티는 전통 수연례와 마찬가지로 가정의례 중 하나이다.

가정의례란 가정에서 행하는 의식예절로서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사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절까지 포함한다. 오늘날 상용되고 있는 가정의례라는 용어는 1969년 정부 주도로 ‘가정의례준칙(Family Rite Rules)’을 제정할 때 처음으로 쓰였으며, 이전에는 이를 가례(家禮)라 하였다. 과거로부터 의식이나 의복 및 음식 등이 가문에 따라 규범화되어 이어져왔던 전통적인 가정의례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서구문화의 유입과 도시화, 산업화의 확대에 따라 소멸되거나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주영애, 2011).

실버파티도 전통수연례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델인 만큼 가정의례 중 생일의례로 분류하여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티(private party)에 속하며 60세 이상의 노인 즉, 전통으로 내려온 수연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 속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파티로 전통 개념의 수연례를 현대사회의 환경, 니즈(Needs), 트렌드(Trend)등에 맞게 변형 및 전문화 한 다양한 파티를 지칭한다. 단순히 서양파티의 형식과 수연례를 형식을 합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수연례의 의미와 정성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파티의 형식, 구성요소, 상차림, 진행방식 등을 달리하여 보다 젊어진 실버세대의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 부모세대 뿐 아니라 자녀세대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새로운 파티형식인 것이다.

즉, 개념을 정리하자면, 실버파티(Silver Party)는 환경의 개선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길어진 수명으로 실버세대의 문화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지면서 과거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했던 전통 수연례(회갑, 칠순, 팔순

등)를 현대 실버세대의 트렌드와 니즈에 맞게 변화시킨 새로운 파티문화이다.

실버파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주최가 되어 열 수도 있고, 기업이나 호텔 등이 주최가 되어 다양한 컨셉과 스타일에 따라 열릴 수도 있다. 실버파티에서는 파티의 목적 중 ‘기념’과 ‘축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이 함께하는 ‘사교’의 수단도 추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버파티는 자식들이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산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무병장수 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파티로 부모가 즐거워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타일링, 음식 등을 선정하여 차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버파티는 단순히 서양파티의 형식과 수연례를 형식을 합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수연례의 의미와 정성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파티의 형식, 구성요소, 상차림, 진행방식 등을 달리하여 보다 젊어진 실버세대의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파티형식인 것이다.

## (2) 실버파티사례

실버파티 사례는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실버파티 패키지 상품사례와 개인의 실버파티 사례를 기사와 직접 조사를 통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① 호텔 실버파티 패키지상품 사례

호텔에서 진행되는 실버파티의 경우 별도의 교회연 파티나 ‘효’를 주제로 한 패키지로 기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웨딩, 돌잔치처럼 별도의 기획 상품이 아닌 생신연, 가족행사라는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이는 아직 실버파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실버파티에 대한 상품의 중요성을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1) 벨레상스 서울 호텔

벨레상스 서울 호텔(구, 르네상스호텔)은 2016년 1월 3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돌잔치&가족연 페어’를 실시했다.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돌상 스타일링 및 생신연, 고회연, 산수연과 같은 가족연 페어가 돌잔치 페어와 함께 진행되었다. ‘돌잔치&가족연 페어’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 플래너와의 맞춤 상담을 할 수 있었고 당일 계약 고객에게는 식사 20%할인, 행운권 추첨을 통해 2인 조식 포함 디럭스 룸 1박, 2인 뷔페 레스토랑 식사권, 더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 추가 증정 등의 혜택을 진행하였다(기수정, 아주경제2016년1월29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사진8> 벨레상스 서울 호텔 패키지

출처 : 아주경제 2016. 1 29. 기사

### (2) 파크하얏트 서울

파크하얏트 서울은 2012년 8월 부모님을 위한 칠순 잔치를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고회연 패키지’를 제안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의 이벤트 룸(3층)은 높은 천장 및 전면 유리창을 통해 낮에는 자연 채광을 밤에는 도심 야경을 감상하며 프라이빗한 고회연을 갖을 수 있다. 연회전문가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상차림부터, 배너, 케이크와

센터피스, 음식메뉴와 와인 등을 준비하며 뷔페스타일이 아닌 코스 요리로 제공되는 식사메뉴는 한식, 양식, 일식 중 선택 가능하며 이벤트 룸 바로 옆에 위치한 키친에서 즉석으로 조리되어 신선한 요리를 제공한다.

12월 말까지 이 고희연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인원이 40인 이상인 고객에게는 행사 당일 이용 가능한 객실 1박 숙박권과 코너스톤에서의 2인 조식이 포함된 특별 선물로 증정했다. 고희연 패키지는 인원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가격은 15인 기준 250만원부터이며 25인은 400만원, 40인은 590만원이며, 이 가격에는 10% 세금이 부과된다(이투캐스트블로그 2012년8월9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사진9> 파크하얏트 서울 호텔 고희연패키지 스타일링  
출처 : E2CAST 글로벌 뉴스 2012. 8. 9. 기사

### (3) 그랜드 앰배서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2015년 3월부터 돌잔치, 생신연과 같은 가족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라이빗 파티 패키지를 선보였다.

스탠더드, 프리미엄, 럭셔리까지 총 3종류로 구성된 패키지는 30~100명 규모로 이용할 수 있으며, 뷔페 음식과 음료로 구성된다.

1인당 이용가격은 스탠더드 7만원, 프리미엄 7만 7000원, 럭셔리가 8만

5000원이다. 주중은 할인혜택을 더해 6만5000원, 7만원, 8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으로 상차림(돌상, 칠순, 팔순 등) 또는 패밀리 드럭스룸 1박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우석, 스포츠서울 2015년3월25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사진10> 그랜드앰배서더 가족연 패키지 스타일링

출처 : E2CAST 글로벌 뉴스 2012. 8. 9. 기사

#### (4)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Banyan Tree Club & Spa Seoul)에서는 2015년 3월에 부모님의 생신을 맞이하는 가족, 친지들과 상을 차려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는 마련한다는 취지로 ‘효(孝)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페스타동 2층에 위치한 모리엔(Mori N)에서 진행되는 ‘효 패키지’는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전통적인 의미는 그대로 살리되 반얀트리서울만의 서비스를 더했다.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전통 입식 상차림과 병풍, 생화장식, 한식코스메뉴, 식전 영상용 스크린, 건배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명, 떡 케이크 혹은 포토 에세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식코스메뉴는 여섯 가지 야채와 소고기 밀쌈, 말린 유자를 넣은 인삼 타락죽, 잣 소스를 곁들인 대하 찜, 투플러스 한우 채끝 등심구이와 도미구이, 해물탕, 대추 푸딩과 복분자 아이스크림으로 구성

된다. 이 패키지의 이용가격은 30명 기준 450만, 50명 기준 660만원이다(부가세 포함)(기수정, 아주경제 2015년3월9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사진11>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패키지 상차림

출처 : 아주경제 2015. 3. 9. 기사

호텔별로 실버파티 패키지를 정리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호텔별 실버파티 패키지

장소	상품명	음식종류	가격	혜택
벨레상스 서울호텔	가족연	코스요리, 뷔페 중 선택가능	75,000원 80,000원 87,000원 100,000원 상차림별도 (전통상33만원, 현대49만5천원)	객실1박숙박권 (추첨) 뷔페2인식사권 케익교환권 등
파크하얏트 서울	고회연 패키지	코스요리	15인 250만원 25인 250만원 40인 590만원	객식1박숙박권 코너스톤 조식

그랜드 엠배서더 호텔	생신연	뷔페	스탠다드 70,000원 프리미엄 77,000원 럭셔리 85,000원	상차림 또는 패밀리 디럭스룸1박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효(孝) 패키지	한식 코스	30명 450만원 50명 660만원	상차림과 스타일링 전반 밀착 서비스 (입식 상차림, 병풍, 생화장식, 식전영상용스크린, 스파클링와인 떡 케이크 또는 포토에세이 등)

자료 : 연구자 재정리

### (3) 개인 실버파티 사례

현대 개인 실버파티의 경우 집 마당이나 대청마루에서 행해지던 전통 수연례와는 달리 호텔이나 뷔페 등과 같은 외부장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헌수도 술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참석자 모두와 함께 축배를 드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진행절차는 전통적인 수연례를 모방하여 그 절차를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간소화했으며 다른 오락적 프로그램요소나 전시 등의 요소를 함께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떠한 본질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하게 흉내 내며 전통과 현대가 혼재하는 개인파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 ① 구자경 LG명예회장 미수연

구자경 LG명예회장의 88세 미수연이 2012년 4월 24일 서울 코

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장남인 구본무 LG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수연 모임을 가졌다. 이날 떡 케이크 절단식과 구본무 회장은 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구자경 명예회장은 답사로 축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김정남, 이데일리 2012년4월29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재정리).



<사진12> 구자경 LG명예회장 미수연

출처 : 이데일리 2012. 4. 29. 기사

## ② 김백봉 선생 미수연

원로 무용가 김백봉 선생의 88세 미수(米壽)연이 2014년 2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백봉 선생은 ‘부채춤’, ‘화관무’를 무대화한 ‘한국무용의 거목’이다. 이날 연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영화감독 김기덕, 무용가 이매방, 김문숙, 국수호, 한명옥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미수연을 주최한 김백봉춤보존회의 회장 김인숙은 연회장 입구에 스승의 손발을 뜬 조각과 함께 1940년 최승희무용단 시절 초기부터 2012년 명작명무전의 부채춤 공연까지 각종 자료를 전시하였다(신세미, 문화일보 2014년2월13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사진13> 김백봉 선생 미수연

출처 : 문화일보 2014. 2. 13. 기사

### ③ 방송인 송해 구순

희극인 송해선생은 1927년 황해도 재령출신으로 2016년 4월 27일 만 89세 즉 구순생일을 맞았다. 약 30년째 '전국노래자랑'(KBS1)을 진행하며 정정한 모습으로 100세 시대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는 송해선생은 '리얼리티 예능'KBS2 '나를 돌아봐'에 출연하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사진14> 송해 선생 구순연

출처 : KBS 나를 돌아봐 방송 화면

에서 후배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구순 생신연이 펼쳐졌다. 사회는 조우중, 이경규가 진행하고, 이상벽, 가수 이애란, 오승근, 국악인 박애리, 남상일등

이 출현하여 축하를 불렀다. 방송에 나온 구순연 파티는 가수들의 축하와 주인공의 답가, 랩퍼의 노래 등이 펼쳐지는 자유롭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인공 앞의 구순연 상차림은 최근 호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느낌의 퓨전 상차림으로 과거 수연상차림에 비해 많이 간소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승희, 헤럴드경제 2016년4월28일 기사인용 및 연구자 재정리).

#### ④ 한복려 원장 고회연

궁중음식연구원 원장이자 무형문화재 제 38호 궁중음식기능보유자 한복려 원장의 고회연이 2016년 5월 13일에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열렸다. 우리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알리고자 이번 고회연은 조선 궁중에서 치르던 의식을 최대한 재연한 행사로 최근 연구자가 본 실버파티 중 가장 전통 수연례의 상차림과 형식에 가까운 실버파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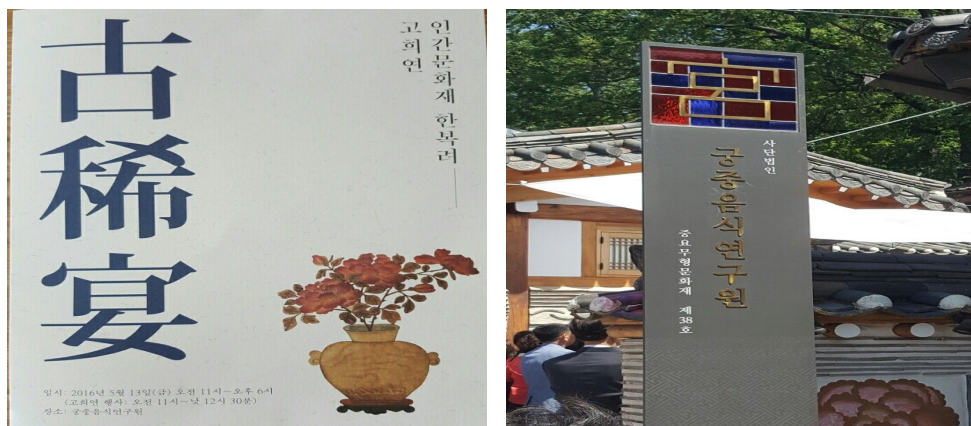
고회연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 되었으며, 행사 순서는 9현의 의례를 5현으로 구성하여 약식으로 진행하였고 진행은 궁중의례연출가인 김거부선생이 맡았다. 행사 의례 순서는 다음의 <표5> 같았다.

<표5>. 한복려 원장 고회연 순서

식순	세부식순	세부 프로그램
1. 기념식(記念式)	개식사	
	주빈 입장	
	약력 소개	
	가족 소개	
	내빈 소개	
	내빈 축사	
2. 고회경수연 (古稀慶壽宴)	진찬안(進饌案)/ 진휘건(進揮巾)/	

	진화(進化)	
	1헌작(獻爵)	헌시 추가: 창작판소리
	2헌작(獻爵)	추가
	3헌작(獻爵)	헌시 옛 음식책 『잡지』 출간기념 봉정
	4헌작(獻爵)	회심곡
	5헌작(獻爵)	
	진어과합 (進御果榼)	
	경수탄금 (慶壽彈琴)	-드라마 대장금 ost 만파정식지곡 -해금 연주 -25현금 연주
3. 파연(罷宴)	감사인사(한복려)	
	복떡(福餅)나눔	
	기념촬영	
4. 축하오찬 (祝賀午餐)		

출처 : 교회연 식순 안내지



<사진15> 한복려 원장 교회연 안내지와 궁중음식연구원 입구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



<사진16> 한복려 원장 교회연 (의례집례 / 헌작)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



<사진17> 한복려 원장교회연(회심곡 / 교회연 전경)

출처 : 연구자 직접 촬영



<사진18> 한복려 원장 교회연 (큰상 / 장국상)

출처 : <http://blog.naver.com/bera1807/>

북촌에 위치한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고회연은 입구에서 프로그램 순서를 알리는 안내지와 방명록을 기입하는 곳이 있었다. 연구원 안쪽 마당에 대자리가 펴져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관한 가운데 한복려 원장이 궁중 당의와 족두리를 쓰고, 자리에 앉아있었다. 뒤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 병풍이 쳐져있고, 주인공의 앞에는 큰상이 놓여져 있고 그 안 쪽에 장국상이 차려져 있다. 큰상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높게 괴어 있고, 큰 상 앞쪽 양 옆에 떡으로 만든 상화가 있다. 식순은 차례에 따라 진행되고, 1헌작에는 자녀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였고, 뒤이어 가족, 궁연회, 지미재, 수강재 등 한복려원장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과 제자들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이에 축가를 부르거나 헌시를 낭독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고회연 행사 진행 후 참가한 사람들에게 복떡을 나누어주고, 점심을 대접하는 것에서 과거 전통 수연례에서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던 풍습과 인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고회연 행사는 전통 궁중 수연례의 상차림과 식순 등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수연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실버파티를 재현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3) 실버파티와 전통수연례 비교

실버파티는 기존의 전통 수연례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개념으로 상차림, 의복, 장소, 절차, 목적 등에서 유사한 면과 상이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차림을 비교하자면, 전통 수연례의 상차림은 지역에 따라 차리는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놓는 위치 등이 다르지만 회갑자 앞에 차려지는 큰 상(고배상, 망상이라고도 함)과 회갑자의 시장기를 달리주기 위한 임매상(장국상이라고도 함)이 차려지는 것은 동일한 형태였다. 큰상위에 있는 음식은 높이 꺾어 올렸고, 연회가 끝난 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먹었다. 또한 큰 상의 양 옆에는 상화나 지화로 장식하기도 하였다.

실버파티도 파티주인공 앞에 화려한 상을 차려주는 것은 동일하나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놓는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으며, 떡이나 빵으로 된 케익이 올라가고 임매상과 같은 종류는 따로 차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상화나 지화 대신 생화를 많이 사용하여 꽃이나 촛대로 화려한 스타일링을 많이 하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따로 정해진 의복의 형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 등을 입고 갓을 쓰며 여자는 치마 저고리에 족두리와 원삼까지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새로 장만한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였고 남편과 아들이 있는 여자는 남색치마에 자주색 삼회장저고리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버파티는 더욱 자유로운 의복의 연출이 가능해졌으며, 남자는 한복 혹은 양복을 입는데 한복을 입을 때에도 갓은 거의 쓰지 않으며 여자 역시 한복이나 양장을 입거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기도 하는데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입는다.

전통 수연례의 장소는 잔치 연(宴)대신 대자리 연(筵)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마당에 대자리를 깔아 자리를 마련하거나 비가 올 경우 마루에 상을 차렸는데 실버파티는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현대 주거의 특성상 마당이 많지 않아 집에서 할 경우에도 주로 실내에서 진행하며, 그밖에 호텔, 뷔페, 회관 등에서 행해지면 최근에는 펜션이나 교외의 야외 파티장과 같은 이색적인 장소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좌석 역시 전통 수연례는 좌식으로 대자리에 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의 실버파티는 입식생활의 영향으로 대부분 의자에 앉아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진행절차를 비교하자면, 전통 수연례는 현수잔을 받기 전에 사당에 잔을 올리며 고하는 의식을 먼저 행하였고, 가족, 친지, 자녀들로부터 현수잔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행의식 중 하나였다. 여기에 창을 부르거나 수연시를 지어 회갑자에게 전하기도 하였는데 현대 실버파티 진행 절차는 그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다양하며, 현수잔 대신 샴페인이나 와인 등의 술로 건배를 하기도 하며, 창이나 국악 공연을 비롯해 손주들의 재롱잔치, 주인공의 일생 영상 상영, 편지낭송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수연례와 실버파티는 여러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인식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 수연례와 실버파티는 외형적으로는 사회, 문화, 환경에 따른 변화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파티와 전통 수연례의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없다. 외형적으로는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실버파티와 수연례의 본래 목적은 동일하다. 이는 부모의 장수에 대한 축하와 더불어 자식을 정성스레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례행태인 것이다. 그 기저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전통수연례와 실버파티 비교

	상차림	의복	장소	진행절차	목적
전통 수연례	·큰상과 임매상으로구성  ·지역마다 구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상에는 권 음식을 올림  ·장식으로 상화나 지화 사용	·남자는 바지, 저고리, 갓 등을 착용  ·여자는 남색치마, 삼회장 저고리	·집 앞마당에 자리를 깔거나 마루에 상차림  ·좌식으로 착석	·잔치 전 사당에 고향  ·헌수잔  ·수연시 낭송 등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며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자식들이 연회행사를 준비함
실버 파티	·테이블에 큰상의 형태로 음식을 피어 올리지만 종류나 위치 등이 다름  ·떡이나 빵으로 만든 케익 올림  ·장식으로 생화나 촛대를 사용	·남자는 한복이나 양복 착용  ·여자는 한복이나 양장, 드레스 등 착용 (색상은자유)	·집, 호텔, 뷔페, 펜션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  ·대부분 의자에 착석	·건배제의 ·창이나 국악 공연 ·재롱잔치 ·편지낭독 ·일생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출처 : 연구자 구성 및 정리

의례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표현되어왔는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시대성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의례의 형태로 진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며, 그에 맞는 예법이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전통 수연례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실버파티 형식은 전통적인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계승하면서도 현재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실버파티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전보다 사회·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의 안락해짐으로써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점차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전통수연례가 가진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통수연례를 대신할 수 있는 실버파티의 개념을 제시하고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실버파티의 필요성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했다. 더불어 실버파티를 진행할 때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파티구성요소 중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버파티의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실버파티를 실행시킬 자녀세대들의 효의식과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을 통해 기초자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버파티를 활성화시키고 실버 세대를 주요 소비층으로 한 파티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실버파티인식에 관한 규명하기 위하여 자녀세대들을 대상으로 효의식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실버파티 제약요인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실버파티 구성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일반적인 실버파티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5>.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실버파티 제약 인식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6>. 실버파티 구성요소 중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실증분석 하기 위한 조사 도구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남·녀 자녀세대 227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9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 전 파티관련전공자 석·박사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1:1의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하여 회수된 227부 중 유효한 21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효의식에 대한 문항(16문항), 효행에 대한 문항(16문항),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문항(5문항), 실버파티 필요성에 관한 문항(6문항), 실버파티 제약요인에 관한 문항(6문항), 실버파티 구성요인(16문항), 일반적 사항(10문항)에 관한 총 75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 형태에서 효의식과 효행, 실버파티 필요성, 실버파티 제약요소, 실버파티 구성요소에 대한 부분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사항과 실버파티 인식, 실버파티 구성요소에 관한 문항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였다.

###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실버파티에 관한 기존 선행 연구가 없는 관계로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지 구성은 대학생들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김미정, 2011)논문에서 나온 효의 분류에 따라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고, 파티구성요소는 파티플래닝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비교에 관한 연구(김선희, 2004)에서 실버파티구성요소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 파티 계획 시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였고, 효의식과 효행, 실버파티 필요성, 파티구성요소 중요도에 관한 항목은 5점 리커트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자녀세대들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10문항), 효의식(16문항), 효행(16문항), 실버파티의 인식(5문항), 실버파티 필요성(6문항), 실버파티 제약요인(6문항), 실버파티구성요소(16문항)등 총 7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Ⅲ-1> 설문지 구성 내용

변 수	유형	측정문항 수
일반적 사항	명목척도	10
효의식	5점리커트척도	16
효행	5점리커트척도	16
실버파티 인식	명목척도	5
실버파티 필요성	5점리커트척도	6
실버파티 제약요인	5점리커트척도	6
실버파티 구성요소	5점리커트척도 명목척도	16
총		75

####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실버파티 구성요소와 실버파티 제약 인식 문항의 기술 통계량,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차이 t검증과 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e Test를 실시하였다. 효의식과 효행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 분석 기법을 실시하였다.

분석 수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 실버파티 인식, 실버파티 제약요인, 실버파티 구성요소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빈도 및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의 요인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내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다.

셋째,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요소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전체의 빈도 분석을 통한 표본의 일반적 사항은 <표IV-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68명으로 31.6%, ‘여자’가 147명으로 68.4%의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은 ‘20대’가 79명으로 3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이 73명으로 34.0%, ‘30대’는 63명으로 29.3%를 나타나 20대에서 40대 이상 까지 골고루 분포됨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182명으로 84.7%를 차지하였으며, ‘지방권’은 33명으로 15.3%로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형제순위로는 ‘첫째 또는 외동’이 87명으로 40.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는 80명으로 37.2%이며, ‘셋째이상’은 48명으로 22.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으로는 ‘대졸’이 150명으로 69.8%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40명으로 18.6%로 나타났으며, 고졸이 25명으로 11.6%으로 일반적인 학력 분포를 고려했을 때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여부로는 ‘미혼’이 116명으로 54.0%이며, ‘기혼’이 99명으로 46.0%로 미혼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로는 ‘무교/기타’가 90명으로 41.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독교’가 76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불교’가 33명으로 15.3%, ‘천주교’가 16명으로 7.4% 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으로는 '200만원 미만'이 97명으로 4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46명으로 21.4%, '400만원 이상'이 40명으로 18.6%, '300~400만원 미만'이 32명으로 14.9%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교육 분위기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 52명으로 24.0%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보통이다'가 51명으로 23.7%, '엄하고 보수적'이 50명으로 23.3%, '매우 자유롭고 민주적'이 38명으로 17.7%이며, '매우 엄하고 보수적'이 24명으로 11.2%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졸의 학력을 가지며, 소득이 비교적 낮은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IV-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15)

변 수	구 분	N	%
성별	남성	68	31.6
	여성	147	68.4
연령	20대	79	36.7
	30대	63	29.3
	40대이상	73	34.0
거주지역	수도권	182	84.7
	지방권	33	15.3
형제순위	첫째 또는 외동	87	40.5
	둘째	80	37.2
	셋째이상	48	22.3
학력	고졸	25	11.6
	대졸	150	69.8

	대학원 이상	40	18.6
결혼여부	미혼	116	54.0
	기혼	99	46.0
종교	기독교	76	35.3
	불교	33	15.3
	천주교	16	7.4
	무교, 기타	90	41.9
월소득	200만원 미만	97	45.1
	200~300만원 미만	46	21.4
	300~400만원 미만	32	14.9
	400만원 이상	40	18.6
가정교육	매우 자유롭고 민주적	38	17.7
	자유롭고 민주적	52	24.2
	보통이다	51	23.7
	엄하고 보수적	50	23.3
	매우 엄하고 보수적	24	11.2

## 2. 자녀세대 효의식과 실버파티 필요성

### 1)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 요인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효의식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에 의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IV-2〉참

조)

고유치(eigen value)기준을 적용하여 1.0보다 큰 요인만을 선택하였으며, 각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4.0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변수들의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량 모두 4.0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항목들이 개념들 간에 서로 구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일반적으로 0.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한다.

자녀세대의 효의식의 경우 총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0.73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개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은 65.6% 였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요인1은 부모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의복을 준비해 드리고, 병환이 있을 시에는 부모님을 보살피 드리는 등 부모님에 대한 효도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5.08, 설명변량 26.67%로 '부모공경 효의식'라 명명하였다.

요인2는 명절때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훈을 만들어 지키며, 가풍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1.64, 설명변량 21.27%로 '가족화목 효의식'라 명명하였다.

요인3은 몸을 청결히 하며, 밖에서 예절바른 태도를 지니며,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1.15, 설명변량 17.66%로 '자기관리 효의식'이라 명명하였다.

<표IV-2>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인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Cronba ch's a
요인1. 부모 공경 효의식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한다	.796	.839
	부모님의 생신을 잊지 않고 잘 챙겨드려야 한다	.714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연락드려야 한다 (주 2-3회 이상)	.794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계절별로 의복을 준비해드려야 한다	.635	
	부모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밖에 나가면 연락을 만드시 드려야한다	.683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에는 외출이나 여행을 삼가고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피 드려야 한다	.617	
요인2. 가족 화목 효의식	명절 때 친지들이 모두 모여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683	.820
	집안의 가훈을 만들어 지키려고 노력한다	.854	
	집안의 가풍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829	
요인3. 자기 관리 효의식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는 것을 중요하다	.648	.739
	밖에서 예절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	.781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824	

자녀세대의 효행의 경우 총 16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0.738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개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은 65.0% 였다.

요인별 살펴보면, 요인1은 부모의 기념일이나 생신을 챙겨드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병환이 있을 시에는 부모님을 보살피 드리는 등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행동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5.11, 설명변량 29.88%로 '부모공경 효행'라 명명하였다.

요인2는 명절 때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것이 즐거우며, 가훈을 만들고, 가풍을 만드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1.46, 설명변량 17.66%로 '가

죽화목 효행'라 명명하였다.

요인3은 몸을 청결히 하며,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태도를 지니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 행동 내용을 포함하여 고유치 1.23, 설명변량 17.42%로 '자기관리 효행'이라 명명하였다.(<표IV-3>참조)

<표IV-3> 자녀세대의 효행 요인

요인	문 항	요인 적재량	Cronba ch's a
요인1. 부모 공경 효행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항상 공경하고 효도 하려고 노력한다.	.751	.872
	부모님의 기념일이나 생신을 잘 챙겨드리는 편이다.	.753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다. (주 2-3회 이상)	.716	
	부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자식된 도리로 도움을 드린다.	.808	
	부모님께서 안색이 안 좋으시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여쭙보거나 행동하는 편이다.	.720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에는 외출이나 여행을 삼가고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피 드린다.	.739	
요인2. 가족 화목 효행	명절 때 형제·친지들과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즐겁다.	.632	.759
	집안의 가훈으로 삼을만한 것을 생각하거나 만들었다.	.863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풍을 내 자식에게도 가르쳤거나 가르칠 생각이다.	.830	
요인3. 자기 관리 효행	몸가짐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686	.738
	평소 예의바르고 매너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828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편이다.	.807	

2)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종교, 월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내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녀세대의 효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전통적인 효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별로는 가족화목 효의식(p<.001)과 자기관리 효의식(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화목 효의식과 자기관리 효의식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녀세대의 효행에서는 성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IV-4> 참조) 김미정(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효의식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효의식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4> 성별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구 분		효의식			효행		
		부모공경 효의식 M(SD)	가족화목 효의식 M(SD)	자기관리 효의식 M(SD)	부모공경 효행 M(SD)	가족화목 효행 M(SD)	자기관리 효행 M(SD)
성 별	남성	4.04(.787)	3.75(.906)	4.50(.566)	3.86(.759)	3.42(.961)	4.18(.616)
	여성	4.01(.647)	3.12(.959)	4.29(.596)	3.87(.730)	3.15(.992)	4.11(.578)
	t-value	.367	<b>4.558***</b>	<b>2.427*</b>	-.086	1.902	.785

\* p<.05 \*\*\*p<.001

결혼여부에 따른 효의식은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는 가족화목 효의식(p<.001)과 자기관리 효의식(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효행에서도 기혼이 미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화목 효행(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IV-5> 참조)

<표IV-5> 결혼여부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구 분		효의식			효행		
		부모공경 효의식	가족화목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	부모공경 효행	가족화목 효행	자기관리 효행
		M(SD)	M(SD)	M(SD)	M(SD)	M(SD)	M(SD)
결혼여부	미혼	3.98(.657)	2.95(.926)	4.26(.588)	3.85(.756)	2.91(.999)	4.08(.599)
	기혼	4.06(.733)	3.77(.863)	4.46(.583)	3.89(.719)	3.62(.831)	4.20(.575)
	t-value	-.854	<b>-6.695***</b>	<b>-2.537*</b>	-.407	<b>-5.674***</b>	-1.390

\* p<.05 \*\*\*p<.001

학력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으로는 부모공경 효의식(p<.05)과 부모공경 효행(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고졸보다 부모공경 효의식과 부모공경 효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V-6> 참조)

<표IV-6> 학력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구 분		효의식			효행		
		부모공경 효의식	가족화목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	부모공경 효행	가족화목 효행	자기관리 효행
		M(SD)	M(SD)	M(SD)	M(SD)	M(SD)	M(SD)
학력	고졸	3.67 (.931)a	3.56 (.994)	4.49 (.646)	3.45 (1.012)a	3.19 (3.19)	4.11 (.622)
	대졸	4.08 (.637)b	3.25 (1.047)	4.33 (.596)	3.92 (.684)b	3.20 (1.041)	4.11 (.585)

	대학원 이상	4.01 (.676)b	3.44 (.681)	4.38 (.545)	3.93 (.659)b	3.39 (.798)	4.26 (.587)
	F-value	<b>3.775*</b>	1.393	.873	<b>4.757*</b>	.624	1.078

\* p<.05

종교에 따른 효의식으로는 부모공경 효의식(p<.05)과 가족화목 효의식(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집단 간 차이에서 종교가 불교인 사람이 부모공경 효의식과 가족화목 효의식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행에서는 가족화목 효행(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에서 불교가 가족화목 효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무교/기타보다 가족화목 효행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IV-7> 참조)

<표IV-7> 종교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구 분		효의식			효행		
		부모공경 효의식	가족화목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	부모공경 효행	가족화목 효행	자기관리 효행
		M(SD)	M(SD)	M(SD)	M(SD)	M(SD)	M(SD)
종 교	기독교	4.13 (.669)ab	3.39 (.967)a	4.38 (.636)	3.94 (.652)	3.39 (.881) ab	4.18 (.567)
	불교	4.25 (.477)a	3.89 (.869)b	4.48 (.449)	3.99 (.637)	3.80 (.799)a	4.28 (4.28)
	천주교	3.82 (.665)b	3.33 (.951)a	4.44 (.467)	3.75 (.777)	3.21 (1.046)bc	4.25 (4.25)
	무교 /기타	3.87 (.747)b	3.06 (.962)a	4.27 (.617)	3.78 (.825)	2.90 (1.014)c	4.03 (.606)
	F-value	<b>3.909*</b>	<b>6.428***</b>	1.229	1.195	<b>8.574***</b>	2.070

\* p<.05 \*\*\*p<.001

월소득에 따른 효의식으로는 가족화목 효의식(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이는 월소득이 많을 수록 가족화목 효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효행으로는 가족화목 효행(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가족화목 효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V-8> 참조)

<표IV-8> 월소득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

구 분	효의식			효행			
	부모 공경 효의식 M(SD)	가족 화목 효의식 M(SD)	자기 관리 효의식 M(SD)	부모 공경 효행 M(SD)	가족 화목 효행 M(SD)	자기 관리 효행 M(SD)	
월 소 득	200만원 미만	3.98 (.668)	2.98 (.934)a	4.29 (.577)	3.85 (.768)	2.99 (1.013)a	4.10 (.594)
	200~300만 원 미만	4.17 (.542)	3.41 (.935)b	4.44 (.512)	3.95 (.564)	3.33 (.985)a	4.26 (.511)
	300~400만 원 미만	3.86 (.857)	3.50 (.884)b	4.33 (.580)	3.65 (.894)	3.23 (.730)a	3.95 (.611)
	400만원 이상	4.06 (.748)	3.93 (.917)c	4.44 (.714)	3.99 (.682)	3.73 (.942)b	4.22 (.620)
	F-value	1.384	<b>10.755***</b>	1.078	1.544	<b>5.755**</b>	2.157

\*\* p<.01 \*\*\*p<.001

전체적으로 남성과 기혼, 종교가 불교인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 경우가 가장 효의식과 효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녀세대 효의식과 효행과의 관계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전반적으로 효행보다 효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별로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를 보면 부모공경, 가족화목, 자기관리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관리의 효의식과 효행(.23)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부모공경(.15)의 효의식과 효행, 가족화목(.09)의 효의식과 효행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몸을 청결히 하며, 예의 바르고 매너있는 태도를 지니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행동을 해야한다라는 자기관리 효의식과 효행에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부모의 생신을 챙겨드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병환이 있을 시에는 부모님을 보살피며 드리는 등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해야한다라는 부모공경 효의식과 효행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명절 때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가훈을 만들어 지키며, 가풍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화목 효의식과 효행에서는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세대들이 효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효의 실천행동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와 함께 살던 전통적 대가족 형태가 현대사회에 와서 독립, 유학, 결혼, 분가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인 혹은 핵가족의 형태가 많아지게 되었고, 바쁜 사회생활 등으로 부모와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 어려운 점도 그 요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효의 실천은 효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모공경 효의식과 자기관리 효의식 지수가 높은 것은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이를 실버파티에 대입해보면 파티 진행 시, 신경써야 하는 전반적인 여러 요소들을 파티플래너가 관리 서비스해줄 수 있다면 실버파티가 보다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표IV-9>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과의 차이

항 목	효의식	효행	t	효의식- 효행
부모공경	4.02	3.87	4.905***	.15
가족화목	3.32	3.23	2.090*	.09
자기관리	4.36	4.13	6.618***	.23

\* p<.05 \*\*\*p<.001

#### 4)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

실버파티의 필요성은 총 5문항으로 이에 대한 기술통계량에 대한 신뢰도는 0.817 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IV-10>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 가까운 친지 및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4.20)가 실버파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실버파티를 해드리고 싶다’(4.11)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3.72)로 나타나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는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님의 즐거운 시간과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실버파티가 필요하다는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버파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된다.

<표IV-10> 실버파티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 (N=215)

실버파티 필요성	M	SD	순위	Cronbach's $\alpha$
실버파티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필요하다.	3.92	.810	3	.817
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식된 도리로 실버파티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3.37	1.041	5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실버파티를 해드리고 싶다.	4.11	.839	2	
부모님이 가까운 친지 및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4.20	.787	1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	3.72	.990	4	
전 체	3.86	.893		

5)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소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소 중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IV-11>참조)

자녀세대의 효의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1에서는 부모공경 효의식(Beta=.379), 자기관리 효의식(Beta=.157)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가 도출되었다. 모델 1의 설명력은 25.3%를 보였다.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소 중 부모공경에 대한 효의식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관리 효의식 역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공경에 대한 효의식이 높을수록 부모의 실버파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자기관리에 대한 효

의식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모델 1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여러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중 연령에서 유일하게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20대(Beta=.146)가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26.4%로 모델 1보다 1.1% 높아졌다. 기준인 30대 집단보다 20대 집단이 실버파티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30대나 40대에 비해 20대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영애(2011)에서 가정의례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의례 중 생일의례 공감과 적용의 차이에서 ‘어른의 10년 주기(칠순, 팔순, 구순 등) 생신에는 수연행사를 해야 한다’는 공감과 적용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실버파티 필요성과도 연결되는 결과로 보인다.

<표IV-11>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의식 요소

변수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효의식	부모공경 효의식	.374	<b>.379***</b>	.364	<b>.369***</b>
	가족화목 효의식	.043	.063	.048	.069
	자기관리 효의식	.181	<b>.157*</b>	.198	<b>.172*</b>
연령 (기준: 30대)	20대			.206	<b>.146*</b>
	40대이상			.184	.128
Adj. $R^2$		.253		.264	
F-value		<b>25.215***</b>		<b>16.327***</b>	

\* p<.05 \*\*\*p<.001

6)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행 요소

자녀세대의 효행 요소 중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IV-12>참조)

자녀세대의 효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델 1에서는 부모공경 효행(Beta=.355), 자기관리 효행(Beta=.171)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효의식과 마찬가지로 자녀세대의 부모공경에 대한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공경에 대한 효행과 자기관리에 대한 효행이 높을수록 실버파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 1의 설명력은 22.6%를 보였다.

효의식과 마찬가지로 모델 1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유일하게 연령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40대(Beta=.151)가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 연령인 30대 집단보다 40대 집단이 실버파티 필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효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26.4%로 모델 1보다 0.9% 높아졌다. 이는 40대가 30대에 비해 효의식을 바탕으로 한 효행을 실천하는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V-12>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행 요소

변수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효행	부모공경 효행	.329	<b>.355***</b>	.334	<b>.361***</b>
	가족화목 효행	.036	.051	.019	.028

	자기관리 효행	.199	.171*	.211	.182**
연령 (기준:30대)	20대			.160	.113
	40대이상			.217	.151*
Adj. R <sup>2</sup>		.226		.235	
F-value		21.809***		14.169***	

\* p<.05 \*\* p<.01 \*\*\*p<.001

### 3. 실버파티 인식과 실버파티구성요소

#### 1) 실버파티 인식

조사대상자의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표IV-13>와 같다. 조사 대상자들이 전통 수연례를 바탕으로 한 부모님의 연령별 생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칠순’이 204명(94.9%)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팔순’ (91.6%), ‘회갑’ (87.0%), ‘고희’ (61.4%), ‘구순’ (52.6%), ‘백수’ (35.3%), ‘희수’ (23.3%), ‘미수’ (17.7%)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예로부터 헤드렸던 수연례를 바탕으로 생신 때 실버파티를 헤드린다면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칠순’이 126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팔순’ (18.6%), ‘회갑’ (14.4%), ‘희수’ (4.7%), ‘미수’와 ‘구순’ (1.4%)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부모님의 생신에 실버파티가 아닌 다른 선물을 헤드린다면 어떤 것을 헤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국내·외여행’이 140명(65.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현금’이 29.8%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선물’ (4.2%), ‘기타’ (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께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실버파티를 헤드리고 싶다면 어느 때에 헤드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생신’이 152명(70.7%)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결혼기념일’ (24.2%), ‘연말파티’ (2.3%), ‘기타’ (9%)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모님께 실버파티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응답으로는 ‘친지·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리게 하기 위해서’가 143명(66.5%)로 가장 많았으며, ‘실버파티를 헤드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해서’가 21.4%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 문화를 접해드리기 위해서’가 8.8%로 나타났다.

실버파티 진행방법의 경우, ‘파티업체의뢰’가 35.3%로 전문업체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이 직접진행’도 28.8%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호텔에서 진행’ (21.9%), ‘출장뷔페에서 진행’ (11.6%)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3> 조사대상자의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 (N=215)

변수	구분	N	%
수연례 용어이해 <sup>주1)</sup>	회갑	187	87.0
	칠순	204	94.9
	회수	50	23.3
	팔순	197	91.6
	미수	38	17.7
	구순	113	52.6
	백수	76	35.3
	고회	132	61.4
실버파티 시기	회갑(만 60세)	31	14.4
	칠순(70세)	126	58.6

	희수(77세)	10	4.7
	팔순(80세)	40	18.6
	미수(88세)	3	1.4
	구순(90세)	3	1.4
실버파티 선물	국내·외여행	140	65.1
	선물	9	4.2
	현금	64	29.8
	기타	2	9
실버파티 날짜	생신	152	70.7
	결혼기념일	52	24.2
	연말파티	5	2.3
	기타	4	1.9
실버파티 필요 이유	실버파티를 해드리는 것이 효 도라 생각해서	46	21.4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 문화를 접해드리기 위해서	19	8.8
	친지·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을 보내드리게 하기 위해서	143	66.5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서	0	0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0	0
	기타	7	3.3
실버파티 진행방법	본인이 직접진행	62	28.8
	파티업체의뢰	76	35.3
	출장뷔페에서 진행	25	11.6
	호텔에서 진행	47	21.9

	기타	5	2.3
총 계		215	100.0

주1) 중복응답으로 응답자 수 및 비율의 합계는 총 215명 및 100%를 초과함

## 2) 실버파티 제약요인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실버파티 실행을 방해하는 실버파티 제약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IV-14〉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버파티가 익숙하지 않아서’(3.43)가 실버파티 실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제약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3.34),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3.08), ‘시간이 없어서’(3.00),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2.90),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2.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아직까지는 실버파티에 대한 생소함이 가장 큰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파티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표IV-14〉 실버파티 제약요인에 대한 평균값 (N=215)

실버파티 제약요인	M	SD	순위
제약1.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3.08	.992	3
제약2.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2.90	.993	5
제약3. 실버파티가 익숙하지 않아서	3.43	.949	1
제약4. 시간이 없어서	3.00	1.030	4
제약5.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3.34	1.014	2
제약6.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2.23	.995	6
전 체	3.00	.995	

일반적 사항에 따라 실버파티 제약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여부와 월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V-15> 참조)

세부적인 결과를 보면, 결혼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없어서’(p<.01)과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미혼(3.19)이 기혼(2.77)보다 시간이 없어서 실버파티를 하는데 제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미혼(3.57)이 기혼(3.07)보다 비용적인 부담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월소득에 따라서는 ‘실버파티가 익숙하지 않아서’(p<.05), ‘시간이 없어서’(p<.001),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을 수록 실버파티에 익숙하지 않고 비용적인 부담을 더 느끼기 때문에 실버파티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가장 제약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혼보다 미혼이 시간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 더 실버파티에 관한 제약을 더 느끼며, 소득이 낮을수록 실버파티에 대한 인식도 낮고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IV-15>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실버파티 제약요인 차이

구 분		제약1 M(SD)	제약2 M(SD)	제약3 M(SD)	제약4 M(SD)	제약5 M(SD)	제약6 M(SD)
결혼 여부	미혼	3.06 (.963)	2.76 (.992)	3.49 (.899)	3.19 (1.004)	3.57 (.877)	2.21 (1.009)
	기혼	3.11 (1.029)	3.07 (.972)	3.35 (1.003)	2.77 (1.018)	3.07 (1.100)	2.25 (.983)
	t-value	-.373	-2.321	1.062	<b>3.052**</b>	<b>3.694***</b>	-.334
월 소득	200 만원 미만	3.05 (1.035)	2.80 (1.057)	3.60 (.920) a	3.20 (1.017)a	3.63 (.928) a	2.25 (1.000)

200~300 만원 미만	3.00 (1.054)	2.98 (1.125)	3.24 (1.037)ab	2.87 (1.002)a	3.28 (1.026)ab	2.13 (1.067)
300~400 만원 미만	3.31 (.738)	3.13 (.660)	3.50 (.672) ab	3.28 (.958) a	3.09 (.893) b	2.50 (.916)
400 만원 이상	3.08 (.997)	2.88 (.883)	3.18 (1.035)b	2.42 (.931) b	2.90 (1.105)b	2.08 (.944)
F-value	.709	.952	<b>2.718*</b>	<b>6.891***</b>	<b>6.234***</b>	1.277

\* p<.05 \*\* p<.01 \*\*\*p<.001

### 3) 실버파티 구성요소

조사대상자들이 실버파티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파티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IV-16> 참조)

‘스타일링이 최대한 화려한 것이 좋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각 요소별 고려하는 수준은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이 청결해야 한다’(4.70)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파티 장소가 가까워야 한다’(3.87), ‘적절한 비용이어야 파티를 진행하겠다’(3.82), ‘야외보다는 실내가 좋다’(3.59), ‘음식은 정찬보다 뷔페식이 좋다’(3.33), ‘공간이 쾌 찬 느낌이 좋다’(3.17)’,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이 좋다’(3.17), ‘진행은 전문사회자가 있는 것이 좋다’(3.14), ‘자주 헤드리지 못하니 비용은 상관없다’(3.06), ‘스타일링이 최대한 화려한 것이 좋다’(2.87)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버파티를 진행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음식의 청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장소의 근접성, 적절한 비용을 많이 고려하며, 파티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스타일링은 실버파티를 진행하는데 큰 고려점이 아

나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중 문예지(2015)의 파티서비스 품질의 중요도 조사에서 중요도가 음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장소,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주영애(2014)의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 조사에서도 돌 의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참석자들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반면 화려한 돌잔치 장소연출에 대한 부분은 낮은 비중을 차지해 대표적인 개인 의례 중 하나인 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파티구성요소중에는 아직 파티 스타일링이나 프로그램 등 다른 요소들의 비중보다 음식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IV-16> 실버파티 고려 구성요소에 대한 평균값 (N=215)

실버파티 고려 구성요소	M	SD	순위
파티 장소가 가까워야한다	3.87	.991	2
야외보다는 실내가 좋다.	3.59	1.094	4
음식이 청결해야한다.	4.70	.585	1
음식은 정찬보다 뷔페식이 좋다.	3.33	1.233	5
스타일링이 최대한 화려한 것이 좋다.	2.87	1.063	10
공간이 팍 찬 느낌이 좋다.	3.17	1.119	6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이 좋다.	3.17	1.112	6
진행은 전문사회자가 있는 것이 좋다.	3.14	1.238	8
자주 헤드리지 못하니 비용은 상관없다.	3.06	1.042	9
적절한 비용이어야 파티를 진행하겠다.	3.82	.967	3
전 체	3.47	1.044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실버파티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파티 구성 요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표Ⅳ-17> 참조)

실버파티를 진행 시 적당한 장소에 관한 응답으로는, ‘호텔’이 90명(41.9%)로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뷔페’(34.0%)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관’(8.4%), ‘집’(7.9%), ‘기타’(7.9%) 순으로 나타났다.

실버파티를 진행 시 적당한 소요시간으로는 ‘2-3시간 미만’(51.2%)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2시간 미만’(41.9%)을 가장 적당한 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1시간 미만’(3.3%), ‘3시간 이상’(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기혼자와 미혼자 공통으로 본인 부모님의 실버파티를 진행 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응답으로, ‘200-300만원 미만’(39.1%)이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 미만’(36.7%), ‘300만 원 이상’(15.3%), ‘100만원 미만’(8.4%)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배우자 부모님의 실버파티를 진행 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100-200만원 미만’(31.6%)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고, ‘200-300만원 미만’(27.0%), ‘300만 원 이상’(13.5%), ‘100만원 미만’(8.8%) 순으로 나타났다.

실버파티 진행 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50명 미만’(68.8%)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50-100명 미만’(25.6%), ‘100-200명 미만’(3.3%), ‘200명 이상’(1.4%)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실버파티에 50명 미만의 적은 인원의 하객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버파티 진행 시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관한 응답으로 ‘부모님의 일생 영상 상영’(67.4%)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손주들의 재롱잔치’(47.0), ‘창이나 국악공연’(18.1), ‘댄스파티’(11.6%), ‘기타’(4.7%) 순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버파티 시 부모님을 회상하는 영상을 상영하거

나 손주들의 재롱잔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IV-17> 실버파티 고려 구성요소 (N=215)

변 수	구 분	N	%
파티 장소	집	17	7.9
	호텔	90	41.9
	뷔페	73	34.0
	회관	18	8.4
	기타	17	7.9
파티 소요시간	1시간 미만	7	3.3
	1-2시간 미만	90	41.9
	2-3시간 미만	110	51.2
	3시간 이상	7	3.3
	기타	1	0.5
본인 부모님 실버파티 예산	100만원 미만	18	8.4
	100-200만원 미만	79	36.7
	200-300만원 미만	84	39.1
	300만 원 이상	33	15.3
	기타	1	0.5
배우자 부모님 실버파티 예산	100만원 미만	19	8.8
	100-200만원 미만	68	31.6
	200-300만원 미만	58	27.0
	300만 원 이상	29	13.5
	기타	1	0.5
파티 참석 인원	50명 미만	148	68.8
	50-100명 미만	55	25.6

	100-200명 미만	7	3.3
	200명 이상	3	1.4
	기타	2	0.9
실버파티 프로그램 <sup>주1)</sup>	창이나 국악공연	39	18.1
	댄스파티	25	11.6
	손주들의 재롱잔치	101	47.0
	부모님의 일생 영상 상영	145	67.4
	기타	10	4.7
총 계		215	100.0

주1) 중복응답으로 응답자 수 및 비율의 합계는 총 215명 및 100%를 초과함

## V. 결 론

### 1. 결 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통 수연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들이 전통적 인식의 노인이라 불리기보다 실버세대로 명명되길 원하고 보다 젊고 활동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실버세대의 달라진 라이프스타일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수연을 챙겨드리는 자녀세대의 인식 또한 좀 더 실용적인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생각으로 변화하면서 전통 수연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 수연례의 의미는 비단 부모의 장수를 축하드리는 것 뿐 아니라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하나의 효행이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전통 수연례를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 변화시키고 파티분야에서 아직 연구가 미비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파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대 자녀세대들의 효의식과 효행에 따른 실버파티 인식과 실버파티 필요성, 실버파티 제한요소, 실버파티 구성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수연례를 헤드릴 부모세대가 있는 20세에서 59세 남·녀 자녀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지 227부를 배포하고 유효한 데이터 215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실버파티 구성요소와 실버파티 제약 인식 문항의 기술 통계량, 자녀의 효의식과 효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일반적 사항에 따른 효의식과 효행차이 t검증과 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e Test를 실시하였다. 효의식과 효행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 분석 기법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의 요약을 근거로 본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기혼, 종교가 불교,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효의식과 효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가정 화목이나 사회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전통사회로부터 가장중심 사회의 영향을 받은 자녀세대들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정에서의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더 갖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효는 남녀의 구분이 아닌 자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불교가 가장 효의식과 효행이 높게 나타났지만 종교의 종류보다 종교의 유무에 따라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무교인 사람들보다 부모에 대한 효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의식이나 마음으로만 그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다 소득이 높고 여유가 있어야 행동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티의 규모나 비용이 아닌 그에 담긴 의미와 마음이 중요하므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의미있다 하겠다.

둘째,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분석을 보면 전반적으로 효의식이 효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공경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이 자녀세대들이 효의식에 대한 개념과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천은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자녀세대들이 효의

식을 기반으로 효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실버파티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의 요소 중 부모공경에 대한 효의식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효의식과 효행이 높을수록 실버파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며, 실버파티를 헤드리길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 효의식도 효의식과 효행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과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효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실버파티에 관한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를 행동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것이다. 실버파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녀세대는 효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파티 기획자들은 전통 수연례의 의미를 잘 담아낸 새로운 형식의 현대적 정서의 실버파티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사항에서는 자녀세대들이 칠순잔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칠순에 실버파티를 헤드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 사회에서 장수라 여겼던 60세보다 장수의 연령이 높아졌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수명이 길어진 것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아직까지 실버파티는 부모님의 생신에 헤드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전통 수연례의 의미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버파티의 진행 방법은 호텔이나 뷔페 등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비율보다 파티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신이 직접 진행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비용적인 면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문적인 파티업체에 의뢰해서 보다 파티다운 파티를 원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 기획자들에게 실버파티 분야는 새롭게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반면, 실버파티 제약 요인에서는 실버파티에 대한 ‘실버파티가 익숙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가장 큰 제약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적인 부담’과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아서’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아직까지 실버파티는 생소한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실버파티를 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사항에 따른 실버파티 제약 요인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여부와 월 소득에 따라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보다 미혼이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의 경우, 아직 자신의 일이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거나 기혼에 비해 자신에 대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버파티 구성요소의 중요도는 음식의 청결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장소의 근접성, 적절한 비용을 많이 고려하며 상대적으로 파티 스타일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파티문화를 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즐기는 데 음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남아있으며, 그 외에도 장소 근접성이나 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는 실용적인 면을 지닌 현대인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이는 파티 기획자들이 실버파티 진행 시 비중이 큰 파티 구성요소들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파티 스타일링과 프로그램 등에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성을 통해 실버파티에 내실을 기해 대중들에게 파티의 여러 구성요소를 조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시사하기도 한다.

시대적 환경과 인식이 달라져 예전보다 효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강제화 시키는 법안이 나오고 이를 통해 효를 장려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효는 우리나라 정서

의 기반이며 중요한 것이므로 법안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장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효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정성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장수를 축하하는 자녀세대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버파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 문화적 특성과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파티 기획자나 파티 플래너들이 실버파티의 수요와 니즈를 잘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형식과 아이디어가 아닌 보다 새로운 상차림이나 프로그램 등을 기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부모님께 자녀세대들이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걸치레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감동이 있는 실버파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실버파티에 관한 인식 연구를 하면서 같은 생일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돌잔치보다 수연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파티기획자로서 아쉬운 부분이다. 개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돌이나 장수를 축하하는 수연 모두 중요한 생일 의례지만 파티기획자의 입장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실버파티를 활성화 시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버파티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의뢰자인 자녀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연의 의미를 잘 살리며 현대 시대상에 잘 맞는 실버파티를 기획 및 진행하여 현재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진 파티시장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 방법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 자료로 한 실버파티에 대한 인식, 제약요건, 파티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선호도 등의 대한 후속 연구들과 현재 실버파티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실버파티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가 가진 여러 가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의 수명이 길지 않은 이유로 기존의 일생의례 연구 중 전통 수연례의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며, 현대 사회에 와서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 즉 실버세대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그들과 관련된 실버산업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파티문화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어 실버파티에 관한 연구의 진행이 미비하다. 그리하여 다른 파티 문화에 비해 실버파티문화의 선행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료를 수집하거나 비교 검토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로 인해 연구 개념을 재정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전통수연례와 실버파티를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효의 분류를 바탕으로 구성된 효의식과 효행동을 측정하는 설문지 II-01, II-02문항은 성격이 비슷한 8가지 효를 각각 2문항씩 구성하여 자녀 세대들의 효의식과 효행이 실버파티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으나 문항수가 적고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효의식과 효행동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 같은 두 독립변수에 대한 차별성을 얻지 못하여 효의식 혹은 효행동 중에 하나의 샘플로만 실버파티 필요성과 분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생각했던 효의

분류 보다 크게 ‘부모공경의 효의식’, ‘가족화목 효의식’, ‘자기관리 효의식’의 세 가지 요인으로 묶어 분석해야 했다. 또한 자녀세대의 효의식과 효행을 바탕으로 실버파티의 필요성과 효의식과 효행의 차이분석은 회귀적 분석이 가능했으나 실버파티 인식, 실버파티 제약요소, 실버파티 구성요소 등의 설문 문항 구성 시 항목들에 비해 문항 수가 적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정도에 그쳐 결과를 더욱 세분화하여 알아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참 고 문 헌

### 학위논문

- 김근영(2007), 실버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외식행동 및 외식메뉴 선호도 분석,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호텔외식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11), 대학생들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다도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상식(2015),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04), 파티플래닝(Party Planning)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비교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철(2014), 실버서비스 유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 분석: 실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전공 박사학위논문
- 김혜겸(2003), 중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의 실태 분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 윤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문예지(2015), 파티서비스 품질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윤(2005), 기업파티 공간연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민(1997),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2001), 회갑의례(回甲儀禮)와 그 의식에 관한 인지도 연구, 세종대

- 학교대학원가정학과 조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문환(1999),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생활 체육 참여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석원(2004), 고등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서경환(2014), 실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신용카드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기복(2014), 베이비부모세대의 라이프스타일,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현(2013), 기업파티가 조직결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2015), 실버층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인(1993), 우리나라 전통의례음식과 그 의식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2006),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파티 잠재고객의 공간연출과 음식에 대한 중요도차이 연구,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호텔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16), 파티의 공간연출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노마(2013), 실버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프로그램 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실버산업학과 실버산업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종호(1998), 한국인의 회갑의례,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내 학술지

- 김숙웅(2007), 실버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구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제14권 1호, pp. 114-117
- 김만태(2008), 한국인의 삶에서 수연례(壽宴禮)가 갖는 의미분석, 실천민속학회 제12호, pp. 43-90
- 김인옥(2003), 수연례의 변천에 관한 일 고찰,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6권 2호, pp. 159-172
- 김인옥·안혜숙·주영애(2006), 수연례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조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9권 2호, pp. 65-74
- 이의훈·신주영(2004),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실버시장 세분화 연구, 한국노년학회 제24권, pp. 1-20
- 최종호(2015), 환갑의례의 역사적 변천과 사회·문화적변화, 실천민속학회, 제 25호 pp. 79-103
- 주영애(2002), 경로연에 관한 현대적 재조명, 한국여성교양학회, 제 10집 pp. 195-210
- 주영애(2011), 가정의례에 대한 여대생의 공감과 적용을 토대로 한 가정의례교육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5권 3호, pp. 1-22
- 주영애(2014), 돌 의례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과 지식, 돌 의례 상품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8권 1호, pp. 1-28

## 국내문헌

- 김상문 외(1999), 두산동아대백과사전, (주) 두산동아.

박경숙(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사.

박일봉 역저(2003), *소학*, 도서출판 육문사.

송래현 외 2인(2007), *연회서비스 실무론*, 대왕사.

송재용(2010), *한국의례의 연구*, 박문사.

신유(2000),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오경화 외 3인(2004), *테이블 코디네이트*, 교문사.

유덕선(1996), *관혼상제대백과*, 도서출판 동반인.

유송옥(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의생활편-*, 문화재관리국.

이길표·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이어화(2001), *한국사이야기 14*, 한길사.

이은주(1995), *전통 의례복식의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이의훈·김숙웅(2004), *실버마케팅*. 형설출판사.

이차숙(1993),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장인협·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지영, 주영애 외(2003), *실버라이프의 이해*, 학문사.

최낙환(1998), *소비자행동론*, 대경.

최순권 외, 『수복-장수를 바라는 마음』 (국립민속박물관, 2007).

천진기 외(2014),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1991), *한국민속대사전1*, 민족문화사.

홍종숙(2007), *테이블 코디네이터*, 수학사.

## 원전류

『內訓』

『論語』

『孝經』  
『孟子』  
『小學』  
『擊蒙要訣』  
『童蒙先習』  
『朝鮮王朝實錄』

## 사이트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4). 2014년생명표 (전국 및 시도) (<http://kostat.go.kr>)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고령화사회 (<http://terms.naver.com>)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www.banyantreeclub.com](http://www.banyantreeclub.com))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  
이투캐스트 ([www.e2cast.com](http://www.e2cast.com))  
스포츠서울 ([www.sportsseoul.com](http://www.sportsseoul.com))  
이데일리 ([www.edaily.co.kr](http://www.edaily.co.kr))  
문화일보 ([www.munhwa.com](http://www.munhwa.com))  
폴리뉴스 ([www.polinews.co.kr](http://www.polinews.co.kr))  
헤럴드경제 ([biz.heraldcorp.com](http://biz.heraldcorp.com))

## 외국 문헌

Allport, G. W.(1965), *Pattern and Growth of Personality*, New York :  
Holt,Rinehart & Winston, p.237.

Coleman, J. C.(1964), *Abnormal Psychology and modern Life*, 3rd Ed.,  
Chicago :Scott, Foresman, p.63.

Lazer, W. (1963), *Life Style Concept and Marketing*. In S. A. Greyer(Ed.),  
*Toward scientific marketing*. Chicago, IL: AMA.

Levy, S, J.(1963). *Symbols for Sale*, *Harvard Business Review*, 37,  
pp.117-124

Moschis, G.P.(1993), "Gerontographics," *Journal of Cosumer Marketing*,  
10(3), 43-53

## **ABSTRACT**

### **A Study on Effects on the Children Generation's Filial Piety and Silver Party awareness**

Park, Hyun Myung  
Celebration Planning &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increased, the quality of life of human life is now expected to be 100 years old age. This means the beginning of another life after life after retirement or age 60 (age 65), and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silver generation. The industry grows silver targets three silver growing number of studies that analyze to their propensity to consume, culture, trends, and many studies have been done even to discover new cultural industries. However phenomenon of life increased while the interest and need for awareness of who could Annual emphasis on existing traditional society has been reduced, the number of trips, gifts, these celebrations culture in cash or replaced for convenience, not birthday parties, such as

the annual and the shows. This would for the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of a busy modern people, but filial piety and celebration for the children of parents decreased longevity of the meaning and form of the traditional annual number on the basis that the mind is very unfortunate that the stance of the party planners. It is also true that it only considered the exclusive property of the party culture, young people are three silver can not be overlooked that the viscosity alienated from that culture.

This study could form a new party called on silver party might be replaced by an annual household effects associated with the child's awareness of the need to investigate aware of the silver party. It is suggested that the significance in providing the basic data needed to revive the party culture and the study of the silver generation as the main consumer group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a survey from April 2016 May 9 to May 2016 May 13, targets the South and female children under 20 years old 59 years old generation 227 people who are parents, you want your silver party for empirical research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we used the data available from 215 patients in the final analysis. 10 people from the Graduate majoring in distributing the questionnaire before receiving party determines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was completed a final questionnaire.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for effective awareness and filial piety of the children of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SPSS 18.0, irradiation frequency of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subjects analyzed and silver-party components and silver party pharmaceutical recognition item analysis for data analysis, generally made effective conscious and filial piety difference t 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e Test was conducted as a post verification. The paired t test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cious and effective filial piety, we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consciousness filial piety on the silver party nee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lver party recognized the need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showed high higher male and married, Buddhist religion and income.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conscious and effective analysis of the three children were generally effective consciousness were higher than the effective pore size of filial piety parents, especially awareness, self-management effectiveness ceremony were many differences with that filial piety. And also recognized the need for greater awareness and more effective in the filial piety of the high silver party in honor of the parent element of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effects affecting silver party needs, wants rigil head showed a silver part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conscious and self-management filial piety.

Third, details on the silver-party recognition is recognition of the 70th largest and three children also wanted rigil The most common silver head the party. Also it appeared to be referred to the party, or a high percentage of their commitment response planning a party directly. According to proceed with the Silver Party in the constraints were the biggest constraints saengsoham for the party culture, general matters consequences are feeling the constraints of the silver party in terms of single time and money than married low awareness, the lower the income, silver party It showed that the constraints of cost receive more.

Fourth, the party was to proceed with the silver component of the party are important factors indicated that the greatest value for what is considered "food cleanliness. It is also important flavor and taste of food accounts for a large share of the party, but it seems to be not independent and also change the perception of modern people who look clean. Next, it came out of the party place to be conscious proximity, relatively low cost, emerged importance for the styling and the party program.

Effective and socially conscious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elderly and based on the idea that the path hyochin means the annual number of

traditional reverence for parents is fading is recognized that simply dismiss this as ostentation ceremonials are widespread. Through the silver party planning time and cost are important, but to be able to succeed revive the meaning of the annual, and I think the practical efforts to implement and reward the effectiveness of the parents who need to grow. This will be a viable sector that can revive the party culture to target the silver generation growing for children three of who is an opportunity to convey my appreciation for the grace celebrate and foster parents of longevity, party planners will be. We will be hoping to find a plan that subsequent studies can be made and enable more actively involved and silver party.

## 부록

No. 

--	--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자녀세대의 효 의식과 실버파티인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조사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시는 모든 응답은 통계학적으로 분석될 것이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어 개인적인 신상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6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CP&M전공

<지도교수> 주영애

<연구자> 박현명

<연락처> 010-9977-8388

<E-mail> party\_alice@naver.com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의 번호 앞 \_\_\_ 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① 남자    \_\_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① 20대    \_\_② 30대    \_\_③ 4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_\_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_\_② 지방권(광역시 및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4. 귀하의 형제 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① 첫째 또는 외동    \_\_② 둘째    \_\_③ 셋째이상

5.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학과 졸업은 동일하게 표기)

\_\_① 고졸이하    \_\_② 대졸    \_\_③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결혼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의 상태)

\_\_① 미혼    \_\_② 기혼

7.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_\_① 기독교    \_\_② 불교    \_\_③ 천주교    \_\_④ 무교·기타(        )

8. 귀하의 월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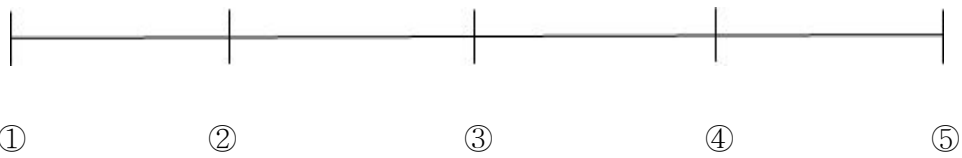
- \_\_① 200만원 미만                      \_\_② 200-300만원 미만  
 \_\_③ 300-400 미만                      \_\_④ 400만원 이상

9. 귀하가 자라면서 받은 가정교육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자유롭고 민주적이다

엄하고 보수적이다



10. 귀하는 자라면서 조부모님과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 \_\_① 있다                      \_\_②없다

**II. 다음은 효 의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고 설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II-01. 다음의 사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해당번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의 생신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드려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떨어져 지내시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 한다. (주 2-3회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계절별로 의복을 준비해드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밖에 나가면 연락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에는 외출이나 여행을 삼가고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피 드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에 중대사는 집안의 어른인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과의 대화중에 나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형제·자매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명절에 친지들이 모두 모여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항상 몸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몸은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항상 소중히 하고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밖에서 예절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집안의 가훈을 만들어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집안의 가풍을 만들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II-02 다음의 사항을 읽고 귀하의 행동과 일치하는 해당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항상 공경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의 기념일이나 생신을 잘 챙겨드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다.(주 2-3회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자식된 도리로 도움을 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께서 안색이 안 좋으시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여쭙보거나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이 병환 중일 때에는 외출이나 여행을 삼가고 부모님을 곁에서 보살펴 드린다.	①	②	③	④	⑤
7	가정의 중대사는 부모님께서 정해 주시는대로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과 대화 시 중간에 끼어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명절 때 형제·친지들과 모이는 것이 익숙하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11	몸가짐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께서 주신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평소 예의바르고 매너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집안의 가훈으로 삼을만한 것을 생각하거나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가풍을 내 자식에게도 가르쳤거나 가르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실버파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읽고 아래의 설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실버파티(Silver Party)의 정의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실버세대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해지면서 과거 부모님의 장수를 축하했던 전통 수연례(회갑, 칠순, 팔순 등)를 현대 실버세대의 트렌드와 니즈에 맞게 변화시킨 새로운 파티문화

Ⅲ-01. 부모님의 실버파티 인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곳의 번호 앞 \_\_\_ 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전통 수연례를 바탕으로 한 부모님의 연령별 생신을 가리키는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체크해주시요. (중복체크가능)

- \_\_① 회갑 \_\_② 칠순 \_\_③ 희수 \_\_④ 팔순  
 \_\_⑤ 미수 \_\_⑥ 구순 \_\_⑦ 백수 \_\_⑧ 고희

2. 부모님께 예로부터 해드렸던 수연례를 바탕으로 생신 때 실버파티를 해드린다면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회갑(만 60세) \_\_② 칠순(70세) \_\_③ 희수(77세) \_\_④ 팔순(80세)  
\_\_⑤ 미수(88세) \_\_⑥ 구순(90세)

3. 부모님의 생신에 실버파티가 아닌 다른 선물을 해드린다면 어떤 것을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 \_\_① 국내·외여행 \_\_② 선물 \_\_③ 현금 \_\_④ 기타 ( )

4. 부모님께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실버파티를 해드리고 싶다면 어느 때에 해드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생신 \_\_② 결혼기념일 \_\_③ 연말파티 \_\_④ 기타 ( )

III-02. 다음은 실버파티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실버파티는 부모님의 장수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식된 도리로 실버파티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실버파티를 해드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 가까운 친지 및 친구들과과의 즐거운 시간을 갖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문화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Ⅲ-03. 다음은 실버파티 실행 시 제약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3	실버파티가 익숙하지 않아서	①	②	③	④	⑤
4	시간이 없어서	①	②	③	④	⑤
5	비용적인 부담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①	②	③	④	⑤

Ⅲ-04. 귀하가 부모님께 실버파티를 헤드릴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① 실버파티를 헤드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해서
- \_\_② 부모님께 새로운 파티 문화를 접해드리기 위해서
- \_\_③ 친지·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드리게 하기 위해서
- \_\_④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 \_\_⑤ 자신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 \_\_⑥ 기타 ( )

Ⅲ-05. 귀하가 부모님께 실버파티를 헤드린다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 \_\_① 본인이 직접진행    \_\_② 파티업체의뢰    \_\_③ 출장뷔페
- \_\_④ 호텔                    \_\_⑤ 기타 ( )

IV. 다음은 실버파티의 파티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IV-01. 다음은 실버파티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파티 구성 요소입니다.

실버파티를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를 5번,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요소를 1번으로 생각하고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No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파티 장소가 가까워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야외보다는 실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음식이 청결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음식은 정찬보다 뷔페식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타일링이 최대한 화려한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공간이 팍 찬 느낌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진행은 전문사회자가 있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주 헤드리지 못하니 비용은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적절한 비용이어야 파티를 진행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IV-02. 실버파티를 진행 시 장소는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집 —② 호텔 —③ 뷔페 —④ 회관 —⑤ 기타( )

IV-03. 실버파티를 진행 시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1시간 미만 \_\_② 1-2시간 미만 \_\_③ 2-3시간 미만  
\_\_④ 3시간 이상 \_\_⑤ 기타( )

IV-04. 본인 부모님의 실버파티를 진행 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혼자와 기혼자 공통)

- \_\_① 100만원 미만 \_\_② 100-200만원 미만 \_\_③ 200-300만원 미만  
\_\_④ 300만 원 이상 \_\_⑤ 기타( )

IV-05. 배우자 부모님의 실버파티를 진행 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혼자만 표기)

- \_\_① 100만원 미만 \_\_② 100-200만원 미만 \_\_③ 200-300만원 미만  
\_\_④ 300만 원 이상 \_\_⑤ 기타( )

IV-06. 실버파티 진행 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 \_\_① 50명 미만 \_\_② 50-100명 미만 \_\_③ 100-200명 미만  
\_\_④ 200명 이상 \_\_⑤ 기타( )

IV-07. 실버파티 진행 시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가능)

- \_\_① 창이나 국악공연 \_\_② 댄스파티  
\_\_③ 손주들의 재롱잔치 \_\_④ 부모님의 일생 영상 상영  
\_\_⑤ 기타( )

\*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